

정책연구

2025-35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Revitalizing Jeonbuk's Tech Startup Ecosystem

고희운 정미선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고희운

부산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미선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25-35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Revitalizing Jeonbuk's Tech Startup Ecosystem

고희운 정미선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고희운 | 연구위원 | 연구총괄

공 동 연 구 정미선 | 연구위원 | 제3장 1절·3절, 제4장 1절

연구관리 코드 : 25JU3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기술선도 성장과 벤처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전북은 지역 내 기술기반 창업 비중이 '24년 기준 2.25%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12위 수준임
- 전북 기술창업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및 청년 및 중장년 창업지원 조례의 지원계획 수립 대응이 시급함
 -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창업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24년 12월에 제정하였고, 해당 조례에 따르면 관련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함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초 종합계획을 '21년에 수립한 바 있어 내년('26년)에 수립해야 함
- 비수도권의 혁신성장 기반 쇠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북 기술창업의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술창업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제도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기술창업의 개념과 정책현황) 기술창업의 개념과 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기술창업 관련 정책 방향의 점검 및 전북자치도의 지원 조례를 비롯한 정책 현황을 검토
- (실태분석 및 심층인터뷰) 세대별 기술창업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태 진단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여 종합적 진단
-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전북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

2.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종합

- 전북의 기술창업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투자 연계·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고리가 약하여 사업화·네트워크의 결핍 등에 따른 구조적 개선의 해법이 필요함
- 전북은 중장년 중심의 기술창업 구조인데, 대체로 경험 활용형·안정 지향형 창업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고도화 및 투자 연계형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이 필요함
- 투자유치의 경험 여부, 투자 시기, 사업화 경험 등이 기업의 성과와 강하게 연결되므로 보육 중심의 교육 및 공간 제공에서 후속 투자와 회수 연계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전북은 기술이전, 공동 R&D, 연구소 연계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대학·출연연·공공기술과 연계된 지역 차원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2) 정책제언

- 전북의 산업·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창업 정책의 전략적 브랜드 'Cen.S'를 전략적 체계의 중심으로 하여 '기술창업을 통한 전북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의 목표를 세우고, 4대 추진방향과 12대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Cen.S(Centered on Startup)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브랜드명이며, Customization, Environment, Nurture, System의 개별 전략의 앞글자를 딴 것임
 - (4대 추진방향) ①세대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②기술창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③지역·사회 기반 로컬창업 육성, ④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확충
 - (12대 세부추진과제) (C1)청년 기술창업사관학교 연계형 프로그램, (C2)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PMO 설치, (E1)전북 개방형 혁신 창업 허브 구축, (E2)딥테크 창업 촉진 및 투자지원 플랫폼, (E3)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 (E4)전북특별자치도 엔젤투자허브 설립, (E5)민간 AC 연계 멘토링 플랫폼 구축, (N1)식품분야 로컬 창업 육성 지원, (N2)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사업 신설, (S1)종합적 관점에서의 창업지원 추진체계 마련, (S2)행정·제도 간소화 패키지, (S3)안정적 경영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기술창업의 이론적 고찰

1. 기술창업의 개념과 의의	13
2. 기술창업의 특성과 역할	16

제3장 기술창업의 정책환경 분석

1. 국내 기술창업 정책 현황	27
2. 지방자치단체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33
3. 전북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46

제4장	기술창업 실태분석
1.	전북 기술창업 실태분석 53
2.	전북 기술창업 기업 심층 인터뷰 79
3.	소결 84
제5장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1.	전북 기술창업의 진단 89
2.	기본방향 설정 91
3.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93
참고문헌	105
영문요약(Summary)	108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기술창업의 지역별 비중 추이	5
[표 2-1] 기술창업 연구자별 정의 및 개념	14
[표 2-2] 기술창업과 일반창업 업종 구분	15
[표 2-3] 기술창업 성공요인 및 선행연구	16
[표 2-4]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	18
[표 2-5] 기술창업 기업의 단계별 핵심 성공요인	20
[표 2-6] 고성장기업(HGF)의 총요소생산성(TFP) 성장 기여 요인 분해	21
[표 3-1] 부처별 기술창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2024~2027)	30
[표 3-2] 시·도별 창업 관련 조례 운영 현황	34
[표 3-3]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요약	35
[표 3-4] 시·도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운영 현황	36
[표 3-5] 시·도별 기술창업 지원 조례 특이사항	37
[표 3-6] 시·도별 특정 대상에 대한 창업 지원 조례 운영 현황	38
[표 3-7] 시·도별 창업 관련 사업 규모	40
[표 3-8] 시·도별 창업예산의 국비 비중(2024년)	41
[표 3-9] 시·도별 지원대상별 창업예산의 국비 비중(2024년)	43
[표 3-10] 시·도별 지원유형별 창업예산 규모(2024년)	45
[표 3-11] 전북 기술창업 지원 정책 추진 현황(2025)	46
[표 3-12] 시군별 특화분야 및 모집규모	48
[표 3-13] 2024년 중장년기술센터 사업 성과	49
[표 4-1] 전북 창업기업 업종별 현황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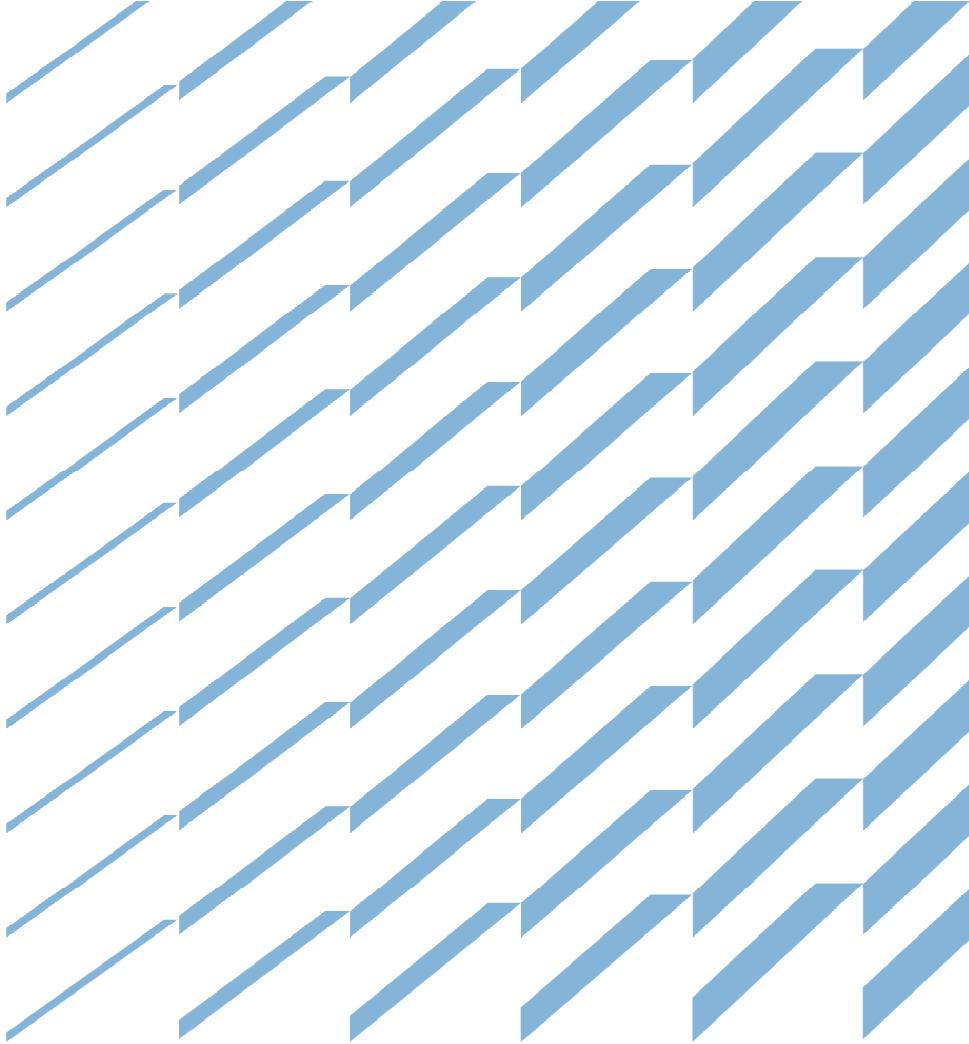
[표 4-2] 기술창업의 지역별 비중 추이	54
[표 4-3] 전북 시군별 폐업 현황	55
[표 4-4] 조직형태별 폐업 현황	56
[표 4-5] 업종별 폐업 현황	57
[표 4-6] 연령대별 폐업 현황	58
[표 4-7] 전북 기술창업 기업 중 청년과 중장년 기업의 비율	59
[표 4-8]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기업 유형 특성	59
[표 4-9]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	60
[표 4-10]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본사 소재지	60
[표 4-11]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단계	61
[표 4-12] 현재 운영 기업 이전의 창업 경험	61
[표 4-13] 평균 창업시도횟수	61
[표 4-14]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62
[표 4-15] 외부 조력 수혜 여부	63
[표 4-16] 창업 시 필요한 교육	63
[표 4-17] 창업 시 필요한 실습과정	64
[표 4-18] 창업 콘텐츠 만족 여부	64
[표 4-19] 창업교육 및 멘토링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65
[표 4-20]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의 출처	65
[표 4-21] 기술이전 주체의 유형	65
[표 4-22] 외부 투자유치 여부	66
[표 4-23] 투자 유치 금액 규모	66
[표 4-24] 투자금 유치 대상	67
[표 4-25] 투자 유치 목적 및 필요 사유	67
[표 4-26] 투자유치 적정 시기	68
[표 4-27] 희망 투자 주체	68
[표 4-28]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69

[표 4-29]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여부	69
[표 4-30] 현재 사업장 입지	70
[표 4-31] 현재 사업장 입지 선정 사유	70
[표 4-32] 사업장 입주 형태	71
[표 4-33] 창업 단계별 필요 지원 사업	71
[표 4-34] 창업지원사업 별 수혜 경험과 만족도	73
[표 4-35] 창업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75
[표 4-36] 기출창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75
[표 4-37] 창업환경 중요도와 전북 창업환경 만족도	77
[표 4-38] 기타 건의사항	78
[표 4-39] 심층 인터뷰 참여 기업 및 참여자 정보	79
[표 5-1] 전북 기술창업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도출	91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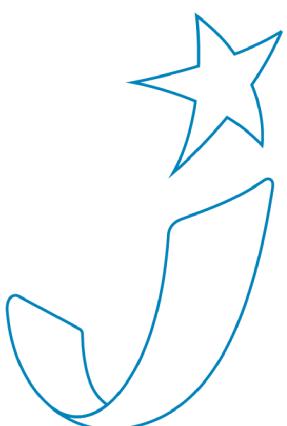
[그림 1-1] 잠재성장률(좌) 및 경제성장률(우) 추이	3
[그림 1-2] 신규 벤처투자 추이(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우) 추이	4
[그림 1-3]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방향	4
[그림 1-4] 전체 창업 대비 기술창업 비율 변화(%)	5
[그림 3-1]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6) 추진체계	28
[그림 3-2]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주요 내용	29
[그림 3-3] 창업지원 사업의 시·도 평균과 전북자치도 비교	39
[그림 3-4] 지원대상별 창업예산 규모(2024년)	42
[그림 3-5] 지원유형별 창업예산 규모(2024년)	44
[그림 4-1] 조직형태별 폐업 현황	56
[그림 4-2] 업력별 폐업 현황	58
[그림 5-1] 전북 스타트업 정책의 브랜딩 전략	92
[그림 5-2] 목표 및 추진방향	93
[그림 5-3] 전북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추진체계	10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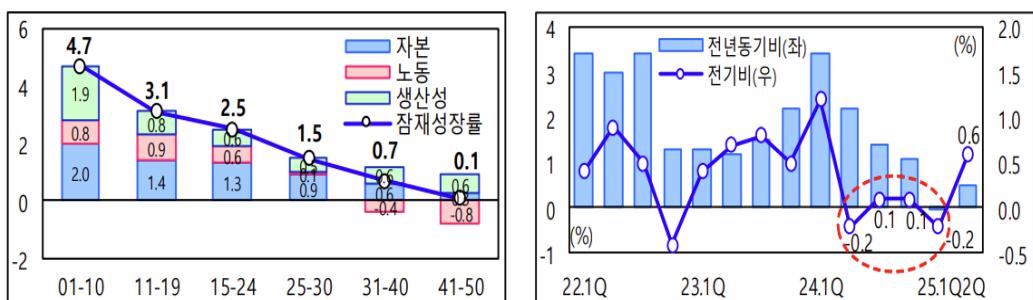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국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성장의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투자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정체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임
 - '10년대 까지는 3%였던 잠재성장률은 '25년대에 들어 1%대로 떨어져 '4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함
 - '24년부터 '25년 1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은 0% 수준으로 나타나,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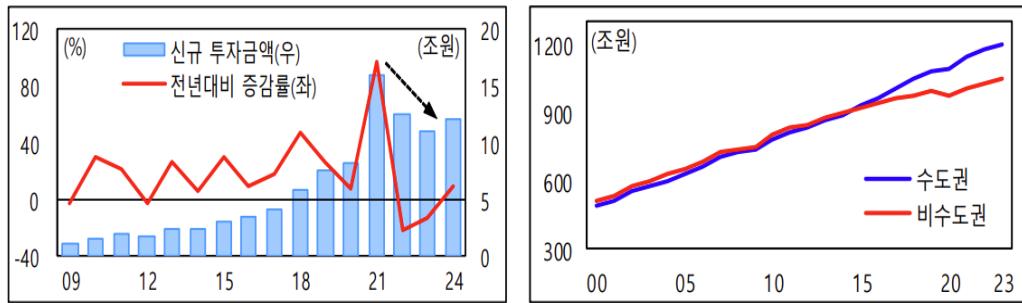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획재정부(2025.8.22.)

[그림 1-1] 잠재성장률(좌) 및 경제성장률(우) 추이

-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과 신규 벤처투자의 정체현상이 지속됨
 - 지역총생산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에도 비수도권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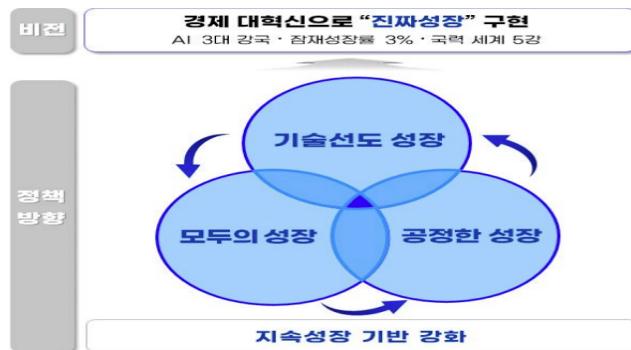
- 신규벤처투자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최근들어 정체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신규 투자금의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획재정부(2025.8.22.)

[그림 1-2] 신규 벤처투자 추이(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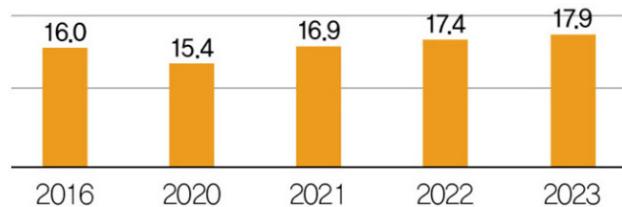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25.8.22일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었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선도 성장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움
 -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방향을 잡음
 - '25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로, '연기금 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 신설',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 '모태펀드 존속기한 연장(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이 확정됨
 - 특히 TIPS 등을 통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및 투자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한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임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획재정부(2025.8.22.)

[그림 1-3]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방향

- ’23년 기준, 전체 창업에서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1년 이후로 증가함
 - 창업은 코로나19 이전에 일반창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창업시장이 위축되거나, 기술창업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 창업시장은 ’16년부터 ’23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을 고려하여 추산한 결과, 전체 창업의 지역별 비중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중에 경북, 전북, 충남의 순으로 연평균증가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라살림연구소

출처: 김정덕. (2025.5.6.). 「강도 약해졌지만 ‘수도권 솔림’ 여전했다 [기술창업 보고서]」. 더스쿠프

[그림 1-4] 전체 창업 대비 기술창업 비율 변화(%)

- 기술창업 내에서 지역별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4년 기준 전북은 중하위 수준임
 - 기술창업 내에서 지역별 차지하는 비중을 ’24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경기(32.3%), 서울(23.84%)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세종(0.8%), 제주(1.17%), 울산(1.56%), 강원(2.11%) 순으로 낮았고, 전북은 2.25%로 전국에서 12위 수준임

[표1-1] 기술창업의 지역별 비중 추이

구분	기술기반 창업 기업수(개)			지역 내 기술기반 창업 비중(%)			3년평균 비중(%)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소계	229,416	221,436	214,917	100	100	100	17.82
서울	53,265	52,387	51,231	23.22	23.66	23.84	23.57
부산	11,305	11,521	10,688	4.93	5.20	4.97	5.03
대구	7,678	8,164	7,826	3.35	3.69	3.64	3.56
인천	12,051	12,751	12,740	5.25	5.76	5.93	5.65
광주	5,151	5,082	4,937	2.25	2.30	2.46	2.28
대전	5,207	5,410	5,283	2.27	2.44	2.46	2.39
울산	3,702	3,822	3,359	1.61	1.73	1.56	1.63
세종	1,735	1,832	1,724	0.76	0.83	0.80	0.80
경기	78,312	69,904	69,415	34.14	31.57	32.30	32.67
강원	4,229	4,691	4,538	1.84	2.12	2.11	2.02

구분	기술기반 창업 기업수(개)			지역 내 기술기반 창업 비중(%)			3년평균 비중(%)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충북	5,969	5,515	5,165	2.60	2.49	2.40	2.50
충남	9,004	8,045	7,575	3.92	3.63	3.52	3.69
전북	4,828	5,040	4,832	2.10	2.28	2.25	2.21
전남	4,939	5,109	4,707	2.15	2.31	2.19	2.22
경북	8,065	7,963	7,520	3.52	3.60	3.50	3.54
경남	11,478	11,620	10,856	5.00	5.25	5.05	5.10
제주	2,498	2,580	2,521	1.09	1.17	1.17	1.14

자료: KOSIS

나. 연구목적

- 기술창업의 경우, 대체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전북의 경우, 기술기반 업종의 연령대는 40대(27.4%), 30대(23.4%), 50대(22.3%) 순으로 나타남
 - 산업연구원(2024)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생각한 나이는 평균 47.3세이고 실제 창업한 때는 평균 50.8세로 나타남
-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 전북의 청년인구는 '10년 이후 연평균 증감율이 -2.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유출 규모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임
 - '23년 기준, 전북 청년 순유출 인구는 7,741명이고, 대체로 직업의 이유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북은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앞세웠으나 해당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고, '24년 기준, 전북 청년 순유출 인구는 8,478명으로 전년대비 737명 증가함
 - 청년 창업기업의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던 '21년(511,387개) 대비 '24년(436,152개)을 살펴보면, 14.71%가 감소하였으며 '21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세임
 - 청년 창업은 취업의 대안이자 참신한 아이템을 통한 자신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선택으로 보았으나 (임아름, 2015),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낮아 오히려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과 부작용을 초래함(안소영·조상미, 2018)
 - 청년 창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김봉근·김영준(2022)은 창업자의 기술적 역량과 자금 조달능력의 향양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청년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 따라서, 전북은 청년 창업자의 역량과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전북 기술창업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및 청년 및 중장년 창업지원 조례의 지원계획 수립 대응이 시급함
 -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창업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24년 12월에 제정하였고, 해당 조례에 따르면 관련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함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초 종합계획을 '21년에 수립한 바 있어 내년('26년)에 수립해야 함
 - 전북 기술창업의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술창업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제도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기술창업 관련 전주기적 지원체계 보강 및 종합계획 수립의 사전적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해 전북 기술창업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제도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도내 기술창업의 실태 점검과 세대별 기술창업 정책 등을 점검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지원 체계 마련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주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내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함
- 기술창업과 관련한 정책, 제도 등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광역지자체 와 해외 도시 등으로 확장하여 검토할 것임

■ 시간적 범위

- 전북도 내의 기술창업 실태조사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24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 추가적인 제도, 정책 등의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2025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활용함

■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 도내외 기술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내 기술창업의 실태를 점검함
- (정책·조례 검토)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타 시도의 기술창업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심층인터뷰) 도내에서 기술창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전북의 창업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행함

나. 주요 연구 내용

1) 기술창업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 기술창업의 정의
 -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창업기업의 개념과 발전 현황 검토
 - 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개념적 정의
 - 기술창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창업 특성 검토
- 기술창업의 구성요소와 역할
 - 기술창업의 성공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성요소 검토
 - 기술창업의 국가·지역차원의 주요 역할 검토

2) 기술창업 정책 현황

- 국내 기술창업 정책 현황

-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술창업 관련 정책 현황

- 새정부 기술창업 관련 정책 방향 점검

- 전북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 광역지자체의 기술창업지원 조례 점검

- 전북의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검토

3) 전북 기술창업 실태분석

- 전북 기술창업 현황 및 실태분석

- 전북 내 기술창업의 연령대별, 업종별, 업력별 등 다각적인 실태 분석

- 중앙 및 전북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창업 기업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점검

-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다각적으로 수행

- 기술창업을 위한 정책의 접근 및 활용, 지원대상, 조건 등 주요 이슈를 검토

-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창업의 주요 이슈 검토

- 실태분석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

- 종합진단

- 전북의 기술창업 현황과 주요 이슈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진단

4)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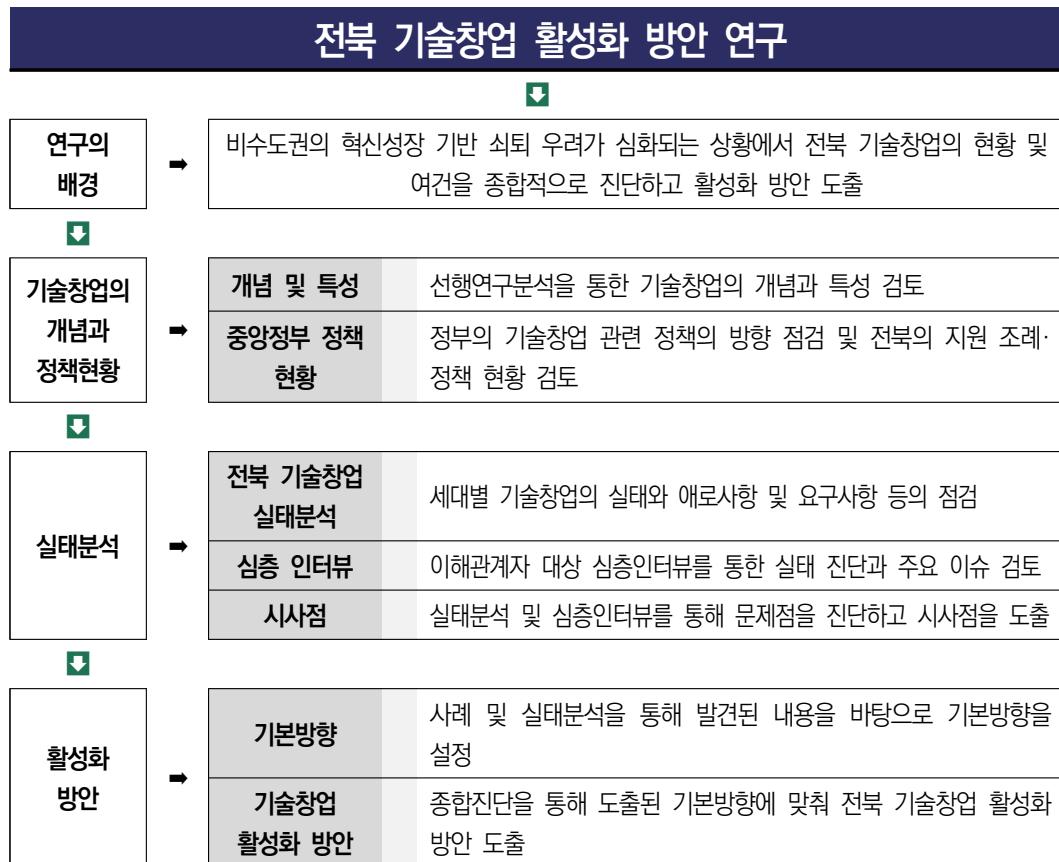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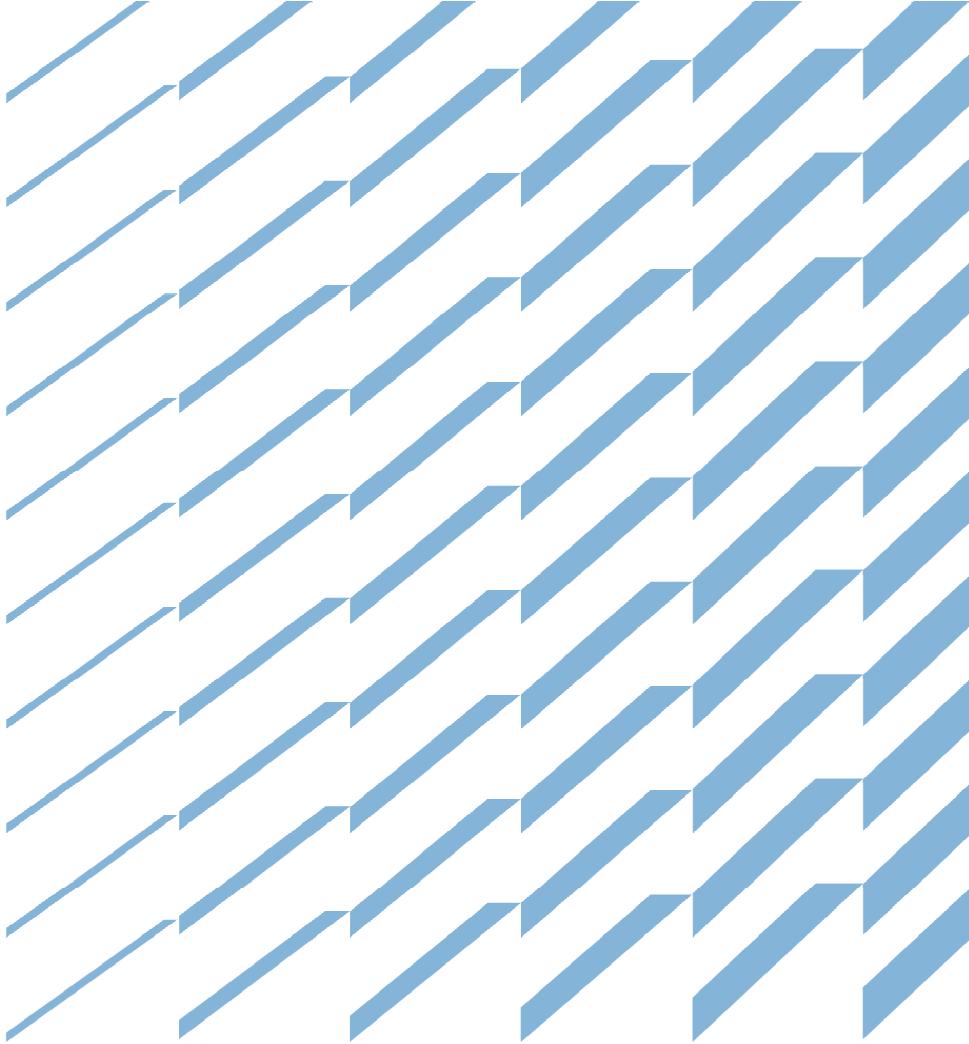
-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

- 전략 및 과제 도출

-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의 수요자의 창업 특성에 맞춰 기술창업 지원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다. 연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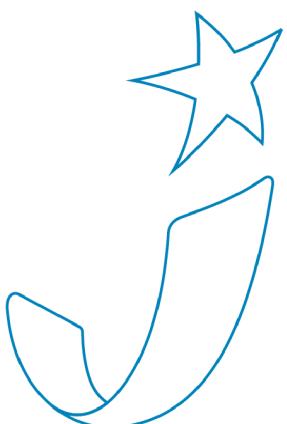




제2장

기술창업의 이론적 고찰

1. 기술창업의 개념과 의의
2. 기술창업의 특성과 역할



제2장 기술창업의 이론적 고찰

1. 기술창업의 개념과 의의

가. 기술창업의 정의

■ 창업의 정의

- 창업이란 사전적으로 새로운 업(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를 의미함
 - 영어로는 벤처(Venture) 또는 스타트업(Startup)으로 표기하며, 말 그대로 새로운 업종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업종을 새로이 창조하여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황윤경, 20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인수·합병이나 폐업 후 동종 업종의 재개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기술창업의 정의

- 기술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창업 형태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며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형태를 의미함
 -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을 의미로 통용됨(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9호에서는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 정의함
 - 특정 분야의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며, '벤처창업', '기술혁신형 창업', '혁신선도형 창업', '기술집약형 창업' 등의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됨

■ 기술창업의 학문적 정의

- 학문적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지식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가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창업이 아닌, 기술혁신을 통해 가치창출과 시장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형 창업활동으로 인식되며, 창업자의 전문 기술역량과 혁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하며, 국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혁신 창업 유형으로 평가됨

[표 2-1] 기술창업 연구자별 정의 및 개념

연구자	개념
Schumpeter (1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s)’을 실행하는 기업가 활동이며, 기술창업은 기술을 매개로 한 혁신적 결합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Cooper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직(대학, 기업)에서 기술적 경험을 쌓은 개인이 독립하여 고도의 기술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현상
Bollinger et al.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기술적 배경을 가진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높고 기술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
Gartner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은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는 과정(Creation of organization)으로, 기술 창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신규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
Roberts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창업자의 기술적 배경과 기술 우위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
Zahra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활동으로, 기술창업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재무적 성과와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
Shane & Venkataraman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은 기술적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벤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기술 변화는 기업가적 기회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
Wright et a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과학·기술 지식을 상업화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활동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핵심 요소로 작용
Acs et a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은 자식의 전이(Spillover)가 새로운 기술기반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기술과 지식의 확산이 창업을 촉진
Giones & Brem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기술창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기업가 활동을 의미함
김진수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 또는 창업가의 기술 및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창업
Autio et a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술은 기업가적 기회의 성격을 변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기술창업 활동을 가능하게 함
오승환 외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반 창업은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으로 정의

자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나.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의 분류와 주요 업종

-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의 개념적 정의는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다뤄지지는 않으나,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
 - (벤처창업) 고위험-고수익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되고 있음
 - (일반창업)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됨
-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술 활용 수준과 혁신성에 따라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이 혼재하는 한계가 존재하나, 산업 분류는 기술창업의 정책 대상 설정과 성과 분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활용됨
 -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반면, 일반창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2] 기술창업과 일반창업 업종 구분

구분		해당업종
기술 창업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항공기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제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기구 제외), 선박 및 보트건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의복 제외),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편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출판, 영상,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일반 창업	생계형 창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자료: (사)창업보육협회, 창업보육매니저 1급 교재 1권, p.3

2. 기술창업의 특성과 역할

가. 기술창업의 주요 특성

■ 기술창업의 성공요인

- 기술창업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일반 창업에 비해 기술과 시장 불확실성이 동시에 높은 특성이 존재
 - 기술창업의 성과는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창업자 개인의 역량, 조직 및 팀의 구성,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 시장 및 비즈니스모델의 적합성,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 왔음(Scott Shane, 2003; Song et al., 2008)
- 기술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고 분석
 - 특히 창업자의 기회 인식 역량과 경험, 조직의 실행 및 학습 능력, 기술 자원의 경쟁우위, 시장 검증과 비즈니스모델 설계, 그리고 산업 구조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기술창업 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반복적으로 제시
 - 이러한 분류는 단일 사례 연구에 그치지 않고, 메타분석과 이론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축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학술적 합의 수준이 높은 편임(Song et al., 2008; Barney, 1991; Teece, 2007)
-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을 창업자 요인, 조직·팀 요인, 기술·제품 요인, 시장 요인, 환경 요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핵심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

[표 2-3] 기술창업 성공요인 및 선행연구

구분	성공요인	세부 내용	연구자
창업자 요인	기회 인식 역량	· 창업 성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 (opportunity)의 발견·활용에 의해 결정	Shane (2003)
	창업가 경험	· 산업·기술·창업 경험이 신생기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Song et al. (2008)
	의사결정 논리	· 불확실성 하에서는 예측보다 효과성(effectuation) 논리가 성과에 유리	Sarasvathy (2001)
조직·팀 요인	팀 역량 구성	· 기술·경영·마케팅 역량의 보완적 조합이 성과에	Song et al.

구분	성공요인	세부 내용	연구자
기술·제품 요인	영향	영향	(2008)
	동적역량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과 전략을 재구성하는 능력	Teece (2007)
	기술 경쟁우위	모방이 어려운 자원(VRIN)이 지속 경쟁우위를 형성	Barney (1991)
시장 요인	흡수역량	외부 지식을 흡수·활용하여 혁신 성과로 전환	Cohen & Levinthal (1990)
	기술-시장 적합성	기술 완성도보다 시장 문제 해결 적합성이 성과를 좌우	Shane (2003)
	고객 검증	초기 실험과 고객 피드백을 통해 실패 비용 감소	Ries(2011)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모델 설계가 기술 상업화 성패 결정	Teece (2010)
	산업·시장 타이밍	산업 생애주기상 진입 시점이 성과 분산에 영향	Robinson (1999)

자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분류 외에도, 창업자 개인의 특성, 조직 역량,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이정민·김병근(2021)에 따르면, 개인 특성(사전지식·경험, 심리적 특성), 조직 역량(기업가정신·기업가지향성, 기업역량, 전략, 자금동원능력), 환경적 요인(산업구조, 지역혁신체계) 등이 기술창업 성과에 주요 영향 요인임을 정리함

■ 창업기업의 단계

-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은 일반적으로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의 3단계로 개념화 되어 왔음
 - 이러한 구분은 창업기업의 전반적인 생애주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유용한 접근이나,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상이하게 작동하는 성공요인이나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자속적으로 제기됨
- 창업 이후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과제가 단일한 ‘성장 단계’로 포괄 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 과정을 4단계 또는 5단계의 다단계 (Multiple-stage) 모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 과제와 관리 요소의 차이를 분석함
 - 이러한 접근은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상이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역량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함(Greiner, 1972; Lewis & Churchill, 1983; Scott & Bruce, 1987)
 - 이자석 외(2021)는 기존 성장단계 이론을 종합하여,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 과정이 단계별로 직면하는 위험 수준과 필요 자원이 상이함을 지적함
 - 특히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 및 스케일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가 단일한 성장 단계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술창업의 성장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표 2-4]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

단계	연구자	성장과정			
3단계	Downs (1967)	침투기	성장초기	쇠퇴기	
	Lippitt & Schmidt (1967)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Smith et al. (1985)	도입기	고성장기	성숙기	
4단계	Quinn & Cameron (1983)	모델단계	발전단계	공식화·통제단계	적응·재도전 단계
	Kazanjian (1988)	개념화 및 개발	사업화	성장	성숙
5단계	Greiner (1972)	창업단계	발전단계	대표권	조직단계
	Lewis & Churchill (1983)	존재	생존	성공	이룩
	Miller & Friesen (1984)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성장기
	Scott & Bruce (1987)	도입	생존	성장	팽창
	Lester et al. (2003)	창업기	생존기	성장기	재도약기

자료: 이자석 외(2021) 재인용

*각 연구별 제시된 단계를 정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구분한 성장단계가 상용되는 것은 아님

■ 기술창업의 단계별 핵심 성공요인

-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은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동일한 중요도로 작용하기보다는 창업 기업이 위치한 성장 단계에 따라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요인과 그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Greiner, 1972; Lewis & Churchill, 1983; Scott & Bruce, 1987)
-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기회 인식의 적절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의 명확성이 성과 형성의 출발점으로 작용
 -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요인은 창업자의 기회 인식 역량과 경험, 기술-시장 적합성, 초기 고객 검증으로 정리됨(Shane & Venkataraman, 2000; Shane, 2003; Song et al., 2008)
 - 기술창업의 초기 성과는 혁신 기술의 우수성 그 자체보다,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시장 기회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에 의해 좌우됨
- 성장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진입 이후 매출 창출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이 핵심 성과로 부각됨
 - 기술창업 기업이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더라도, 사업화 성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성장이 제한됨을 지적하며,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실행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Teece, 2010; Song et al., 2008)
 -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학습과 수정 과정은 실패 비용을 낮추고, 기술창업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Ries, 2011)
- 안정 단계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확대된 조직의 운영 요소를 관리하는 내부 운영·관리 체계 구축 여부가 성과의 지속성을 좌우함
 - 혁신 성과가 개인 수준에 머물 경우 성과의 변동성이 커지는 반면, 조직 차원의 학습과 운영 체계가 구축될수록 성과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임(Cohen & Levinthal, 1990)
 - 이와 함께 기술 경쟁우위 역시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자원일 때 지속적인 경쟁우위로 작동함(Barney, 1991)
- 확장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의 단순 확대를 넘어, 시장·조직·자원의 재구성을 수반한 스케일업 전략이 요구됨

- 동적역량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회를 감지(sensing)하고, 이를 포착(seizing)하며, 자원과 조직을 재구성(reconfiguring)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Teece, 2007)
-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재구성 역량이 부족할 경우, 확장 과정에서 과잉 성장이나 운영 붕괴의 위험이 증가함을 지적함
- 조정 단계는 기술창업 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 성장 한계에 대응하여 사업 구조와 전략을 재조정 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
 - 조직 생애주기 연구에 따르면 성과 둔화나 구조적 한계는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지 않으며, 전략 전환과 재탐색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음이 제시됨(Lester et al., 2003)
 - 이 단계에서는 동적역량과 조직 학습이 다시 핵심적으로 강조되며, 축적된 시장·운영 데이터가 전략 조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함(Teece, 2007)

[표 2-5] 기술창업 기업의 단계별 핵심 성공요인

성장단계	특성	핵심요인	주요 내용
초기 단계	기술 기반 기회 설정 및 불확실성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 인식 역량 · 창업자 경험 · 기술·시장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와 시장 기회의 연결이 성과의 출발점으로 작동
성장 단계	시장 진입 및 초기 매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검증 · 비즈니스모델 설계 · 실행 및 학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가치를 상업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와 시장 실행력이 핵심
안정 단계	운영 구조 정착 및 성과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체계 · 흡수역량 · 기술 경쟁우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역량 중심의 성과가 조직 차원의 학습·운영 체계로 전환되며 성과가 안정화
확장 단계	스케일업 및 조직·자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적역량 · 자원 재구성 능력 · 전략적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조직·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지속 성장 가능
조정 단계	환경 변화 대응 및 전략 재정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전환 역량 · 조직 학습 · 사업 구조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둔화는 쇠퇴가 아닌 전환 국면이며,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재도약 가능

자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나. 기술창업의 중요성

1)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 기술 기반 고성장 및 경제 견인

- 기술창업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고성장 기업(Gazelle)¹⁾ 형태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함
 - 고성장 기업은 기존 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품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 역할(OECD, 2023)
 - 고성장기업(HGF)은 산업 내 자원 재배분과 내부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매출기반 기업의 내부효율(Within) 효과는 2~3%p 수준으로, 기업 자체의 혁신활동과 기술역량 제고가 TFP 성장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

[표 2-6] 고성장기업(HGF)의 총요소생산성(TFP) 성장 기여 요인 분해

구분	내부효율 (Within)	재배분효과 (Between)	상호상관효과 (Cross)	총 TFP 기여도 (Total)
OECD 기준(고용기반)	-0.29 %	1.54%	-1.01 %	0.24%
OECD 기준(매출기반)	2.28%	0.94%	-0.40 %	2.82%
Birch 기준(고용기반)	-0.19 %	2.17%	-1.21 %	0.77%
Birch 기준(매출기반)	3.40%	1.73%	-1.02 %	4.12%

자료: OECD (2020), CERSI Working Paper No. 2020-47, p. 21.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이론에 따르면, 혁신적 신생기업은 비효율적인 기존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재배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혁신 순환과 역동성을 강화함(Schumpeter, 1934)
 - 경제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을 강화하여 외부 R&D 성과와 공공 연구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내재화·상용화함으로써, 기업의 학습 및 혁신 역량을 높이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혁신 효율성을 제고(Cohen & Levinthal, 1990)

1)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

■ 지식 순환 시스템과 지역 혁신 구축

- 대학·연구기관에서 생성된 잠재 지식(Tacit Knowledge)이 창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지식 순환 시스템(Knowledge Circulation System) 형성에 기여함
 - 이러한 지식 순환은 지역 내 기술 기반 산업의 집적과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균형발전의 촉매제(Catalyst)로 기능하며,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Shane, 2003; Audretsch & Lehmann, 2005)
- 기술 파급효과(Technology Spillover)가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하도록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 혁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혁신을 촉진
 -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적 혁신(Collaborative Innovation)구조가 강화되며, 이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2) 산업 구조 고도화 및 파괴적 혁신 촉진

■ 경계 확장자(Boundary Spanner) 역할을 통한 혁신 유발

- 기술창업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이종(異種)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융합적 전환(Industrial Convergence)을 촉진함
 - 기존 기업이 ‘핵심역량의 함정(Core Competence Trap)’이나 ‘자원 희석(Resource Dilution)’ 위험으로 인해 진입을 주저하는 영역에서, 기술창업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촉진함(Christensen, 1997)
 - 이러한 창업기업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공백을 기회(Opportunity)로 전환시켜 산업 내 혁신 순환 구조(Inovation Loop)를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함
- 기술적 나이도가 높은 지식의 상용화(Commercialization of Knowledge)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술 낙후를 방지

■ 딥테크(Deep Tech) 기반 산업 패러다임 전환

- 딥테크 기반 창업은 기초과학 지식과 공학적 통찰력을 융합하여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Paradigm Shift)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 딥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 구조와 가치 사슬(Value Chain)을 재편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Porter & Heppelmann, 2014; Teece, 2018)
- 특히 딥테크 창업은 고유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선점하고, 독점적 시장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산업 경쟁의 규칙을 새롭게 정의함

3) 지속가능한 혁신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실현

- 기술창업은 미션 중심 혁신(Mission-Oriented Innovation)의 핵심 주체로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복합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 공공조달 및 수요 창출 정책과 연계될 경우, 기술창업은 사회문제를 비용 부담의 대상이 아닌 혁신과 가치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함(Mazzucato, 2018)
- 환경기술(Green Tech)과 포용기술(Inclusive Tech)의 상업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모델을 구현함(Porter & Kramer, 2011)
- ESG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함(Porter & Kramer, 2011; Mazzucato,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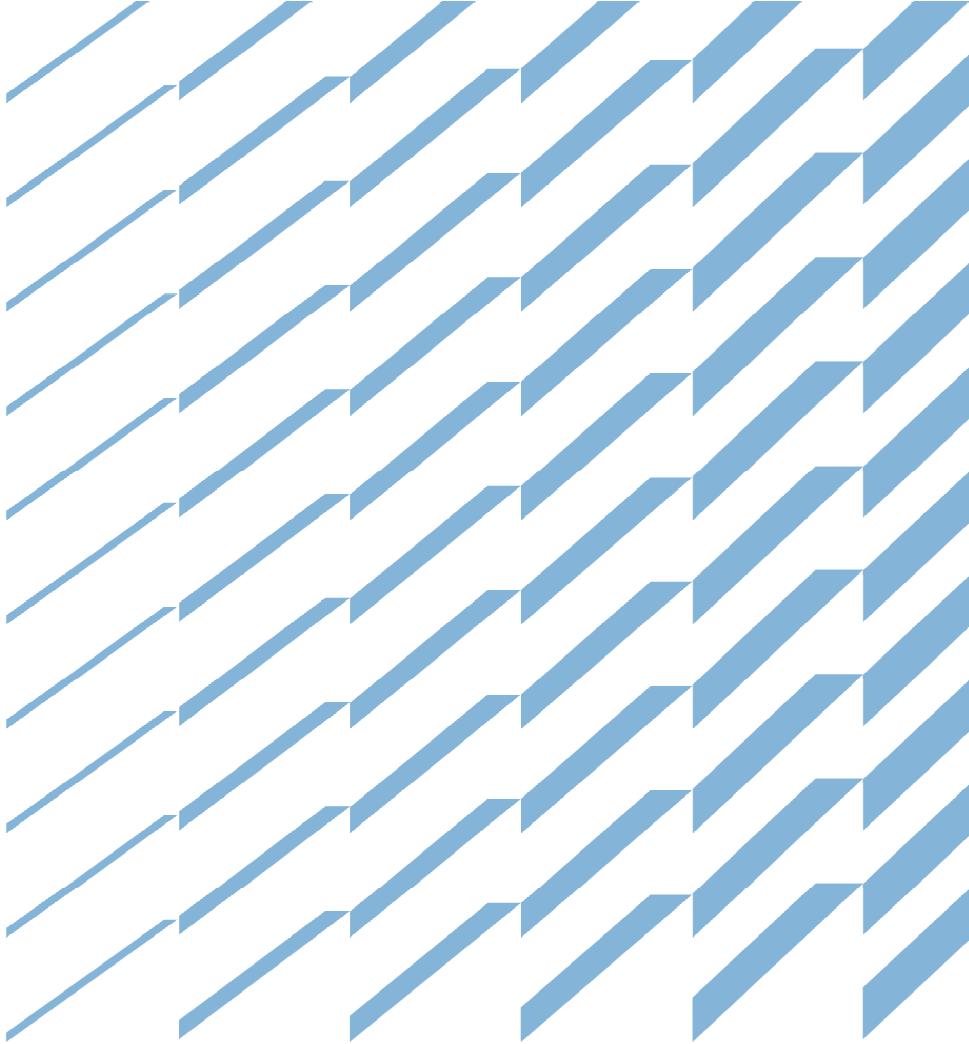
■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창업은 국가의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함(Teece, 2019)
 - 첨단 기술기업이 국제 기술 표준(Global Tech Standard)을 선점할 경우, 지식재산(IP)기반 협상력을 통해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함
- Born Global 기업 형태로 조기 글로벌 진출을 실현하여 수출 및 외화 획득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Startup Genome, 2023)

-
-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국가 위상을 재정의하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함(OECD, 2023)

■ 인적자원 고도화와 혁신역량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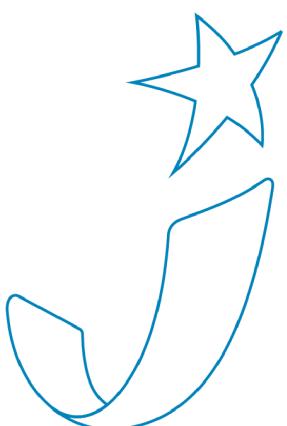
- 기술창업 생태계는 고급 인력이 연구자에서 기술기업가(Tech Entrepreneur)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지식의 생산-상업화-확산이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인적 자본 활용도를 극대화함
- 신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 축적은 국가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동시에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Teece, 2007; Bailetti, 2012)



제3장

기술창업의 정책환경 분석

1. 국내 기술창업 정책 현황
2. 지방자치단체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3. 전북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제3장 기술창업의 정책환경 분석

1. 국내 기술창업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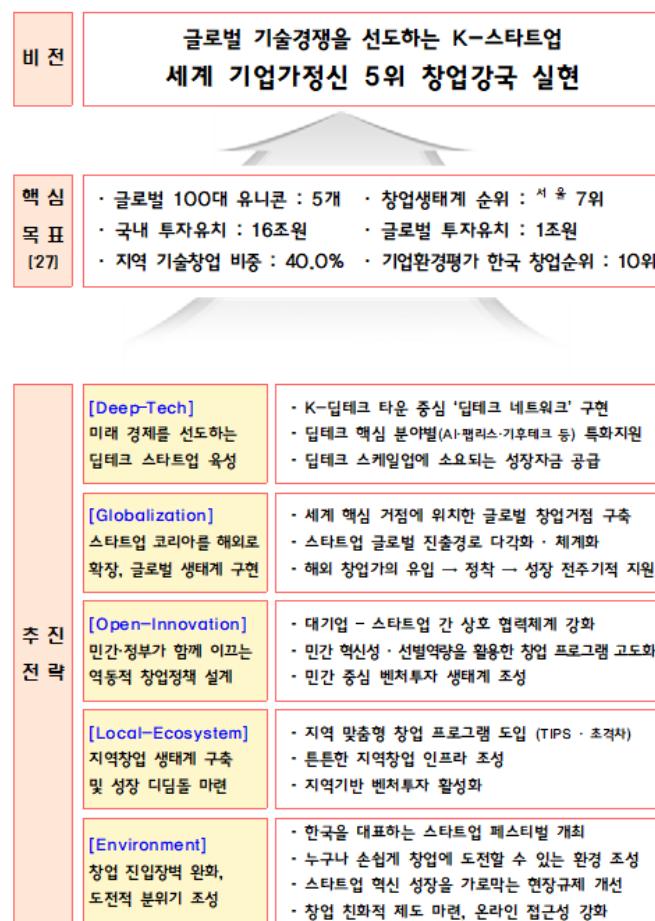
1) 중앙부처 기술창업 주요 정책

■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7)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창업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스타트업이 딥테크 기술역량을 갖춰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창업 정책의 전략을 담아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7)을 수립하였음
- 창업지원 종합계획은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K-스타트업, 세계 기업가정신 5위 창업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되었음
 - 핵심목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5개', '창업생태계 순위 서울 7위', '국내 투자유치 16조원', '글로벌 투자유치 1조원', '지역 기술창업 비중 40%', '기업환경평가 한국 창업순위 10위' 등 6개로 구성
 - 추진전략은 '딥테크', '글로벌라이제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지역창업 생태계', '창업 환경 조성'의 5개 영역에서 수립하였음
- (전략 1)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K-딥테크 타운 중심 ‘딥테크 네트워크’ 구현, 5대 고성장 분야 AI·시스템반도체, 기후테크 분야별 특화지원 정책 추진, 딥테크 스케일업 소요 성장자금 공급 등을 추진
- (전략 2) “스타트업 코리아를 해외로 확장, 글로벌 생태계 구현”을 위해 세계 핵심 거점에 글로벌 창업거점 구축, 글로벌 진출경로 다각화·체계화 지원, 해외 창업가의 전주기적 지원 등을 추진
- (전략 3)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끄는 역동적 창업 정책 설계”를 위해 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민간 혁신성·선별 역량 활용 창업 프로그램 고도화, 민간 중심 벤처투

자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 (전략 4)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 디딤돌 마련”을 위해 지역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도입, 지역창업 인프라 조성,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
- (전략 5) “창업 진입장벽 완화, 도전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창업 환경 조성, 협장규제 개선, 창업 친화적 제도 마련·데이터 기반 강화 등을 추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6)

[그림 3-1]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6) 추진체계

■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 창업지원 종합계획 비전 달성을 위해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창업분야 핵심 과제를 수립함

전략 1.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전략 2.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가속화
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장단계별 지원,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①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실리콘밸리 통합거점, 해외전시회 확대
②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② 글로벌 진출 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 TIPS, R&D, 펀드(13조원) 등
③ 딥테크 혁신 성장자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1.8조원 우대보증, 신규 R&D 50%	③ 해외 창업가의 인바운드 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비자 발급, 전용 사업화, GSC 운영
전략 3. 민간 정부가 함께 이끄는 역동적 창업	전략 4. 균형 있게 성장하는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
①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밸류업 프로그램, 중견기업 협력체 등	① 지역 스타트업 전용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화매개지, 지역 TIPS, 지역 초격차
② 민간 연계 창업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투자매칭형 창업파키지, 투자형 청창사	② 튼튼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시대 벤처펀드 조성, SAFE 펀드 신설
③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타트업코리아펀드(6천억원), CVC 활성화	③ 지역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캠퍼스 혁신파크, 스타트업파크 등
전략 5. 창업 진입장벽 완화, 도전적 분위기 조성	①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콘텐츠리그(문화부) 신설, 초기 창업자에 집중
	② 청년·재창업·여성·대학 등 대상별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년 창업가 850개사 육성, 재창업 인재분위 확대,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부처 협동 실현실창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그림 3-2]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전략 1)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고도화, AI, 바이오, 기후테크 분야 산업별 지원정책, 딥테크 혁신 성장자금 공급 등을 추진
- (전략 2)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글로벌 진출 복합 지원, 해외 창업가의 인바운드 창업 촉진 등을 추진
- (전략 3) “민간·정부가 함께 이끄는 역동적 창업”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 민간 연계 창업 프로그램 확대,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

- (전략 4) “균형있게 성장하는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 전용 프로그램 도입, 지역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역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 (전략 5) “창업 진입장벽 완화, 도전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 K-스타트업 개최, 창업·재창업·여성·대학 등 대상별 창업 지원 등을 추진
 -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창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 850개사를 육성하고,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창업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중앙부처 기술창업 정책 추진 현황

- 부처별 추진 중인 기술창업 정책은 대부분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민간 연계 강화 및 투자유치·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특허·지식재산권(IP) 기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를 중심으로는 청년 중심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등 부처를 중심으로는 중장년 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1] 부처별 기술창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2024~2027)

부처	사업명	세부내용	'24년 예산
공정거래 위원회	일반자주회사 CVC 제도개선(규제개선)	법 개정 후 효과 신속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및 CVC 업무 매뉴얼 개정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원자력 혁신 창업경진대회	예비·초기 창업팀 교육·멘토링·데모데이·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7억원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대학 실험실 창업거점 육성(사전기획, R&BD 등)	53.25억원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대학·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시장화를 위한 실험실 창업 교육·보육 지원	45억원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1단계)	고난도 신기술 기반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지원 (20개 과제×1억원)	20억원
교육부	대학 기술창업 경진대회 SCOUT	대학생 대상 기술창업 경진대회 운영	5,998백만원
	학생 창업유망팀 확대	선발규모 400팀으로 확대	
	학생·교원 창업 주도 프로젝트	'24년 6개교 시범 운영	

부처	사업명	세부내용	'24년 예산
국방부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	창업인식개선 교육-멘토링-국방창업경진대회	총 1억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창업교육 강화	밀리테크 스타트업 캠프 운영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신규 8개 중소기업 지원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기업 R&D 지원	혁신산업 실증·구현 지원	'23~'26 국비 280억원
	캠퍼스혁신파크 기업입주 지원	'24~'26 준공 시 입주기업 모집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총괄)	예비창업·창업·첨단기술기업 지원, AC 육성, 크라우드펀딩, 판로지원	30,112백만원
	벤처육성지원	375개사 사업화자금(예비 최대 7백만원, 창업 최대 42백만원, 첨단 최대 210백만원)	13,125백만원
	벤처창업센터	권역별 6개소 원스톱 컨설팅·네트워킹 등	3,740백만원
	액셀러레이터 육성	농산업 분야 AC 선정·육성 및 스타트업 매칭·투자유치	3,300백만원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업자(팀) 사업화·멘토링·교육·컨설팅	1,360백만원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AC-스타트업 연계, 멘토링·사업화 자금	4,820백만원
	투자연계 창업도약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민간투자 연계	4,600백만원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업화 자금(단계별), 교육·멘토링	10,386백만원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컨설팅	10,468백만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관광벤처 공모전, 교육·컨설팅·홍보	11,814백만원
법무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민간평가위원회 심사 후 중기부 장관 추천으로 창업비자 발급	
	창업이민인재 양성프로그램	외국인 창업희망자 교육참여 기회 확대	1,049백만원
보건 복지부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유치 지원	전문 투자기관 매칭(IR, 컨설팅, 법률지원 포함)	7.5억원
	혁신창업 멤버스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실무교육	
	특허전략 및 인허가 컨설팅	특허 및 인허가 문서 작성·임상 전략 지원	17.4억원
여성 가족부	찾아가는 창업지원	창업 상담사 미배치 센터 대상 맞춤형 컨설팅(시범)	
	예비창업자 발굴·지원	경력단절여성 대상 e커머스·스마트스토어 교육훈련	
	새일센터 창업역량 강화	전담인력 배치, 상담·멘토링·자금 연계	
특허청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재권 기반 사업아이템으로 고도화	2,109백만원

부처	사업명	세부내용	'24년 예산
해양 수산부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7,156백만원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	KAIST·POSTECH 교육원에서 창업역량 강화	1,200백만원
환경부	해양수산 신산업 창업투자 활성화	창업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보육·투자유치 지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예비창업자·유망기업 발굴, 마케팅·판로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기업 홍보·마케팅, 펀드회수, 컨설팅(180개사)	193.9억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민간 AC 주도 교육·멘토링·자금지원(30과제)	36억원
	물드림 사업화 지원	물산업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멘토링(15개사)	1.5억원
	환경창업대전	창업공모전, 창업기획자 연계, 25팀 시상	5.6억원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물산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18개팀)	3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각종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지원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창업 지원 정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청년의 창업 촉진을 위해 해외국 교환 프로그램 도입, K-뷰티 글로벌 트랙 신설, 청년 창업사관학교, 생애최초 창업지원, 대학 내 혁신창업실험실 지정 및 멘토링·후속 사업화 지원, 청년층 AI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자의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년층이 다수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예상됨

2. 지방자치단체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가. 기술창업 지원 조례 현황

■ 창업지원 조례의 운영 현황

- 17개 시도의 창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각 시도마다 특정 분야 혹은 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두는 경우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에 대한 기본조례, 즉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두는 자치단체는 기술창업 혹은 청년, 중장년, 중소기업 등 특정 대상이나 특정 창업형태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설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하는 개별 사항들을 분별화할 경우 관련 계획 수립, 실태조사, 행·재정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창업관련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조례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등 8개 자치단체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기술창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음
 - 서울, 충북, 제주 등은 창업 전반에 대한 조례를 통해 기술창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창업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에서도 창업 지원에 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수혜자에 따라 맞춤형 조례를 두는 경우는 대부분 청년창업을 위한 조례로 이는 창업 기본조례의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주, 세종 충북 등은 수혜자에 따른 별도의 창업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부산은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육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과 전남은 청년 외에도 중장년의 창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창업과 관련한 조례 중 부산의 경우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창업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

의회 조례」를 별도로 두어 창업 지원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표 3-2] 시·도별 창업 관련 조례 운영 현황

자치단체 명	창업 관련 조례 여부	창업관련 조례 수	창업 지원 기본조례 여부	기술창업 조례 여부	특정 대상 창업 지원 조례 여부
서울	○	2	○	-	○(청년)
부산	○	4	-	○	○(청년, 중소기업)
대구	○	2	-	○	○(청년)
인천	○	2	-	○	○(청년)
광주	○	2	-	-	-
대전	○	2	○	-	○(청년)
세종	○	2	-	○	-
울산	○	3	○	-	○(청년)
경기	○	2	-	○	○(청년)
강원	○	2	○	-	○(청년)
충북	○	1	○	-	-
충남	○	2	○	-	○(청년)
전북	○	3	-	○	○(청년, 중장년)
전남	○	3	-	○	○(청년, 중장년)
경북	○	2	○	-	○(청년)
경남	○	2	-	○	○(청년)
제주	○	2	○	-	○(청년)

■ 기술창업 지원 조례 운영 현황

- 전북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술창업 지원 조례의 목적, 계획, 지원사업, 지원 범위 및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정함
 - (목적) 전북 기술창업의 촉진과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
 -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황 및 여건, 정책 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 기반조성, 창업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지원사업)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지원, 보육, 자금지원, 판로지원, 창업 박람회 및 전시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활용, 해외 창업기업 유치 등의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추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연금 등을 지원
- (지원범위) 인력 파견 등 행정적 지원과 관련 지원사업 추진 기관 대상 출연금 등을 지원

[표 3-3]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요약

구분	세부내용	조·항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제1조
계획	<p>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판로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이 외 상기 사업 추진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p>	제5조
지원범위	행정지원, 출연금 지원 등	제6조~제9조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17개 시도 중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8개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의 거버넌스 구축, 실태조사, 창업지원을 위한 기관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자치도의 기술창업 지원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창업 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추후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경우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3-4] 시·도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운영 현황

자치 단체 명	조례 명	계획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거버넌스	기관 운영
부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	○	○	○	-
대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	-	○	○	-
인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경기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	○	○	○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	○	-	-
전남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	○	○	-
경남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	○	○	○	○

- 시·도별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는 각 시·도마다 추진하고 있는 기술창업 육성 및 지원 제도들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주로 포상, 우수 기술창업기업의 인증 기술창업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관련된 사항임
 - 부산은 창업촉진지구를 지정, 창업주간 운영, 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기술창업기업 인증 기술창업 경력증명서 발급, 포상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대구, 인천, 전남, 경기 등은 창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기술재창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타 시도의 조례 내용과 지자체별 창업 지원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북자치도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내용의 근거를 조례를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도의 시책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지원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 시·도별 기술창업 지원 조례 특이사항

자치 단체명	조례 명	내용
부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촉진지구 지정 창업주간 지정·운영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및 발급 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기술창업기업 인증 포상
대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창업정보시스템 구축 포상
인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포상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및 기술창업 기업 인증 포상
경기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재창업 지원 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포상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전남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촉진지구 지정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 기술창업 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 구축 포상
경남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기술창업 등 기업제품 구매 촉진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포상

■ 특정 대상에 대한 창업 지원 조례

- 17개 시도 중 특정 연령대의 대상을 위해 별도로 창업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15개 시도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창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운영의 근거, 그리고 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기관의 설치 등은 유사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는 유사·중복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무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다수의 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남 및 전북의 경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실태조사, 관련 기관 운영의 설치 근거 등은 중복되지 않고 있음

[표 3-6] 시·도별 특정 대상에 대한 창업 지원 조례 운영 현황

자치 단체 명	조례 명	계획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거버넌스	기관 운영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창원 지원 조례	○	-	○	○	○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	○	-	○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	-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	○	○	○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	○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	○
경기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	○	-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	○	-	○
충남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	○	-	○	-	○
전남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	○
	전라남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	○	○	○	-	-
경북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	-	○	-	○
경남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	○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	○

나. 창업 지원 사업 현황

- 17개 시도의 창업 지원 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시·도는 평균 392억원 수준의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창업 지원 사업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사업의 예산 규모 감소는 코로나19이후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창업 수요가 감소하였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의 가속화로 인해 사업 대상자의 감소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재정적인 관점에서는 2023년 및 2024년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국세 감소로 인해 일부 미교부하여 일부 예산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창업 관련 사업 규모의 지역간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최대 2,915억원(경기)에서 최소 279억원(세종)으로 편차가 큼
- 전북자치도는 2022년 318억원에서 2024년 387억원으로 분석기간동안 연평균 10.3%의 창업사업 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음. 사업규모는 분석기간 동안 시·도 중 4번째를 기록함
 - 도 단위에서는 2024년 기준 경기(2,915억원), 경북(885억원) 다음으로 많은 사업규모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그림 3-3] 창업지원 사업의 시·도 평균과 전북자치도 비교

[표 3-7] 시·도별 창업 관련 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서울	62,486	58,743	66,700	3.3%
부산	15,326	15,477	13,299	-6.8%
대구	12,011	9,991	8,965	-13.6%
인천	7,896	6,514	6,007	-12.8%
광주	12,293	30,197	29,331	54.5%
대전	68,722	69,221	30,688	-33.2%
세종	230	795	279	10.1%
울산	4,704	4,646	6,106	13.9%
경기	353,781	215,410	291,540	-9.2%
강원	10,338	17,958	16,510	26.4%
충북	12,006	18,710	16,634	17.7%
충남	12,865	28,113	10,380	-10.2%
전북	31,833	49,927	38,748	10.3%
전남	8,332	9,134	10,044	9.8%
경북	121,481	223,542	88,547	-14.6%
경남	7,331	10,577	9,707	15.1%
제주	7,514	20,810	24,447	80.4%
평균	44,067	46,457	39,290	-5.6%

- 주) 1. 연도별 예산현액(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의 합) 기준
 2. 자치단체별 사업명에 '창업'이 포함된 사업 기준

자료: 지방재정365

- 시·도별 창업 지원 예산사업 규모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9.3%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에 있어 국고보조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 재량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사업 기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국고보조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사업운영의 재량이 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함
 - 창업지원 사업은 국비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높아 사업 추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시·도별로 국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 57.3%(제주)에서 전혀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울, 경기 등도 있음
- 전북자치도는 국비 비중이 38.9%로 시·도 중에서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 추진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재량이 다소 적을 수 있으며, 자체사업 규모를 높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24년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의 국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24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사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 외의 사업에서는 국비 비중이 높지 않음

[표 3-8] 시·도별 창업예산의 국비 비중(2024년)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예산현액	국비	국비 비중
서울	66,700	0	0.0
부산	13,299	1,300	9.8
대구	8,965	3,172	35.4
인천	6,007	6	0.1
광주	29,331	13,467	45.9
대전	30,688	1	0.0
세종	279	0	0.0
울산	6,106	1,500	24.6
경기	291,540	28	0.0
강원	16,510	628	3.8
충북	16,634	3,753	22.6
충남	10,380	859	8.3
전북	38,748	15,068	38.9
전남	10,044	3,162	31.5
경북	88,547	2,901	3.3
경남	9,707	2,070	21.3
제주	24,447	14,009	57.3
평균	39,290	3,643	9.3

주) 1. 연도말 예산현액(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의 합) 기준

2. 자치단체별 사업명에 '창업'이 포함된 사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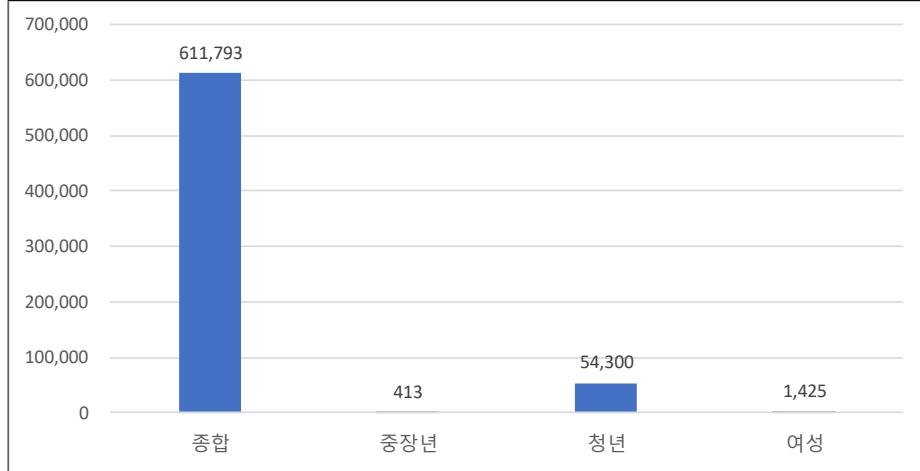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365

- 지원대상을 청년, 여성·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원대상별 맞춤형 예산은 총

561억원 규모이며 전체 창업예산에서 8.4%를 차지하여 대상별 맞춤형 지원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예산 중 대부분은 청년에 대한 예산이며 2024년 기준 543억원으로 96.7%를 차지함
 - 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예산은 중·장년에 비해 많았으나 14억원에 불과함

(단위 : 백만원, %)



- 주) 1. 연도별 예산현액(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의 합) 기준
2. 종합은 2개 이상의 대상을 지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의 기준이 없는 경우
3. 대상의 판단은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사업설명 자료 기준

자료: 지방재정365

[그림 3-4] 지원대상별 창업예산 규모(2024년)

-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시·도에서 청년 맞춤형 창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여성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을 편성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청년에 대한 맞춤형 예산은 시·도 평균 41억원 수준이나 여성 및 중·장년은 각각 1.5억원, 0.7억원 규모로 창업을 지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나타남
 - 다만 맞춤형 지원이 적다는 것이 해당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 예산은 적을 수 있으나 두 개 이상 대상에 대한 예산은 종합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현황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3-9] 시·도별 지원대상별 창업예산의 국비 비중(2024년)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종합	청년	여성	중장년
서울	66,700	6,102	-	-
부산	13,299	1,358	23	-
대구	8,965	529	56	-
인천	6,007	-	3	-
광주	29,331	-	14	195
대전	30,688	1,000	-	-
세종	279	-	-	-
울산	6,106	-	-	-
경기	291,540	3,455	1,088	-
강원	16,510	1,400	10	-
충북	16,634	685	45	20
충남	10,380	5,061	-	40
전북	38,748	15,177	-	80
전남	10,044	4,718	-	18
경북	88,547	5,745	30	-
경남	9,707	2,600	156	60
제주	24,447	6,470	-	-
평균	39,290	4,177	158	69

주) 1. 연도말 예산현액(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의 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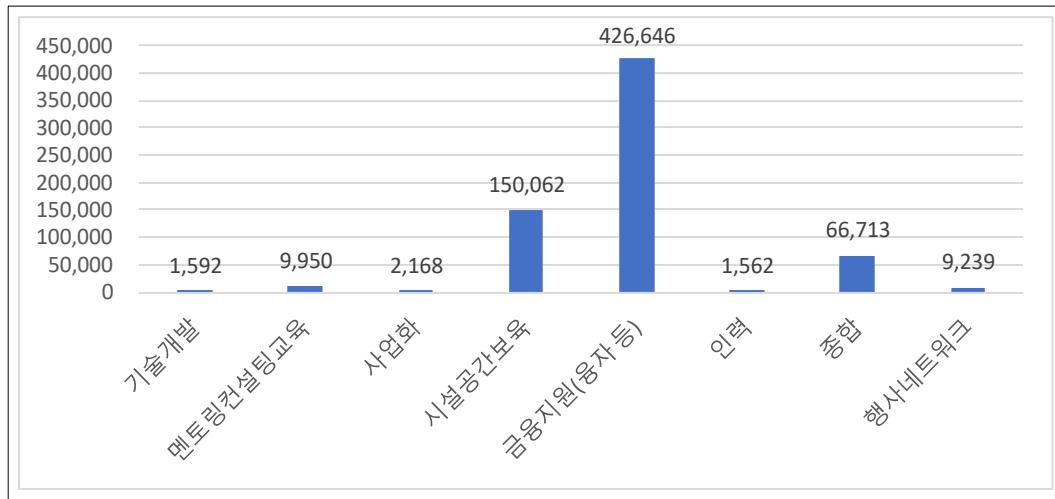
2. 종합은 2개 이상의 대상을 지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의 기준이 없는 경우

3. 대상의 판단은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사업설명 자료 기준

자료: 지방재정365

- 시·도별 창업예산을 중기부에서 분류하는 사업유형에 기초하여 분류하면 융자를 포함한 금융지원의 예산이 4,266억원으로 전체의 6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공간 및 보육 1,500억원(22.4%), 종합 667억원(9.9%) 순임
 - 금융지원 등은 기본적으로 수혜자당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사업비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지원 중 융자는 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상환받게 된다는 점도 예산 규모 파악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개발,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 조성 마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 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



- 주) 1. 연도별 예산현액(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의 합) 기준
2. 종합은 2개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이거나 사업설명서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을 포함함
3. 대상의 판단은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사업설명 자료 기준

[그림 3-5] 지원유형별 창업예산 규모(2024년)

- 시도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등에 대한 사업 예산은 시·도별로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시설·공간·보육 등의 예산과 금융지원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 또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두 개 이상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형 사업 등이 종합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종합에 포함되어 있음

[표 3-10] 시·도별 지원유형별 창업예산 규모(2024년)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종합	기술 개발	멘토링 컨설팅 교육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금융자원 (융자)	인력	행사네 트워크
서울	353	–	1,292	1,196	46,959	16,900	–	–
부산	1,094	–	18	–	9,356	700	100	2,032
대구	3,987	–	50	–	4,896	–	27	6
인천	3,186	–	12	–	1	100	–	2,708
광주	10,781	300	–	–	14,450	3,800	–	–
대전	2,466	900	168	–	9,963	15,200	1,000	990
세종	60	–	–	–	219	–	–	–
울산	6,106	–	–	–	–	–	–	–
경기	3,766	250	3,841	–	11,354	269,580	–	2,750
강원	2,565	–	958	–	602	12,385	–	–
충북	2,620	–	176	–	7,005	6,759	–	74
충남	4,096	–	740	–	5,488	56	–	–
전북	4,367	–	2,193	–	7,941	24,046	–	200
전남	4,664	–	132	–	4,648	600	–	–
경북	4,454	97	6	971	7,436	74,930	293	360
경남	3,359	45	364	–	4,087	1,590	141	120
제주	8,789	–	–	–	15,658	–	–	–
평균	3,924	318	765	1,084	9,379	32,819	312	1,027

- 주) 1. 연도말 예산현액(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의 합) 기준
 2. 종합은 2개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이거나 사업설명서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을 포함함
 3. 대상의 판단은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사업설명 자료 기준

자료: 지방재정365

3. 전북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2025년 기준 전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부문에 총 10개 사업 74억 53백만원 규모,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에 16개 사업 196억 39백만원 규모,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5개 사업 3,061억 4백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3-11] 전북 기술창업 지원 정책 추진 현황(2025)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
전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	소 계		10개 사업	7,45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개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3,036
	인바운드(In-Bound) 창업 지원(전북대 글로컬)	1개소	해외 창업자 발굴, 비자취득 및 법인 설립 등 창업 지원	370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	6개사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지원	1,300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	10개사	창업기업 제품 실증 및 공공구매 연계 지원 등	847
	기후테크 창업기업 성장지원	40개사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및 창업기업 POC 지원 등	540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100개사	유망 스타트업 선정 및 집중 관리 지원 등	180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조성 운영	1개소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거점 조성 및 운영	200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	5개사 유치	지역 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200
	청년 창업 박람회 운영	40개사 내외	도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160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7개사 (신규4, 기존3)	해외 스타트업 유치 액셀러레이팅 및 정착 지원	620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
	소 계		16개 사업	19,639
예비	창창한 창업스쿨	32팀	창업교육, 최소요건제품 제작 지원, BM설계검증, 1:1 멘토링 등	115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33팀	시군 청년 기술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635
	예비 창업 패키지	27개사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1,730
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11개사	스포츠 분야 (예비)창업 3년 이내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735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	10개사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300
	전북형 창업패키지	13개사	대학 인프라 활용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1,000
창업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창업도약패키지	19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3,127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80개사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기관 자율 특화 프로그램 운영	7,817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술기업 창업지원	8개사	데이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300
	중장년 지역창업특화 전문센터 지원	20개사		50
재도전	재도전 성공패키지	27개사	재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성장육성프로그램 지원	2,331
시제품 제작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	30개사	시제품시금형 제작 지원	200
	전북 시제품 제작터 운영 지원	1개소	메이커 교육, 시제품 장비 활용 서비스 지원 등	193
보육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	17개소	입주기업 보육 지원 및 컨설팅 등	300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 운영 지원	3개소	만40세 이상의 시니어 기술 (예비)창업자 사무공간 제공 및 사업지원	356
금융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100개사	기술·청년 창업자 창업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450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
			소 계	5개 사업	
민간 중심 벤처 투자	전북 혁신 성공 벤처 펀드 조성	'23년 6개 펀드 '24년 9개 펀드 '25년 9개 펀드	2,710억원 3,368억원 2,690억원	민선8기 조성된 벤처펀드, 창업·벤처·중소·중견기업 투자 - '23년 : 비수도권 소재 뉴딜·혁신성장 분야, 물 산업 기업, 비수도권 혁신기업 - '24년 : 이차전자·레드바이오·스케일업·세컨더리 펀드 등 - '25년 : 창업초기(주력산업, 신산업), 스케일업, 소부장, 세컨더리 등	306,104 305,282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 - UP	60개사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지원	150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벤처기업 혁신 제품 시장 출입 지원 전북권 엔젤투자 하브운영	45건 4건 40개사	벤처기업 사업화 및 기술화 지원 혁신제품 등록을 위한 기술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도내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52 100 120	
합 계			31개 사업	328,696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청년 창업 박람회 운영,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청년 창업박람회) 도내 청년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 아이디어 제품 전시·판매·홍보를 진행하고, 선배 창업가·대기업 MD·바이어·투자사 등 네트워킹, 상담부스 운영 등을 추진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컨설팅, 심화교육, 시제품 제작(최대13백만원), 홍보 등을 지원
 - 시군별 특화분야를 대상으로 총 33개 사업참여팀을 모집해 지원을 추진

[표 3-12] 시군별 특화분야 및 모집규모

지자체(모집규모)	특화분야	지자체(모집규모)	특화분야
군산시(3팀)	관광, 농생명	무주군(3팀)	관광, 농생명(식품)
익산시(2팀)	바이오·헬스, 식품, ICT	장수군(2팀)	관광, 농생명(식품)
정읍시(3팀)	관광, 농생명(식품 등), ICT	임실군(2팀)	관광, 농생명(반려동물, 식품)
남원시(3팀)	모든 산업분야	순창군(1팀)	농생명
김제시(4팀)	관광, 농생명(식품)	고창군(4팀)	관광, 농생명(식품)
진안군(3팀)	관광, 농생명(식품)	부안군(3팀)	관광, 농생명(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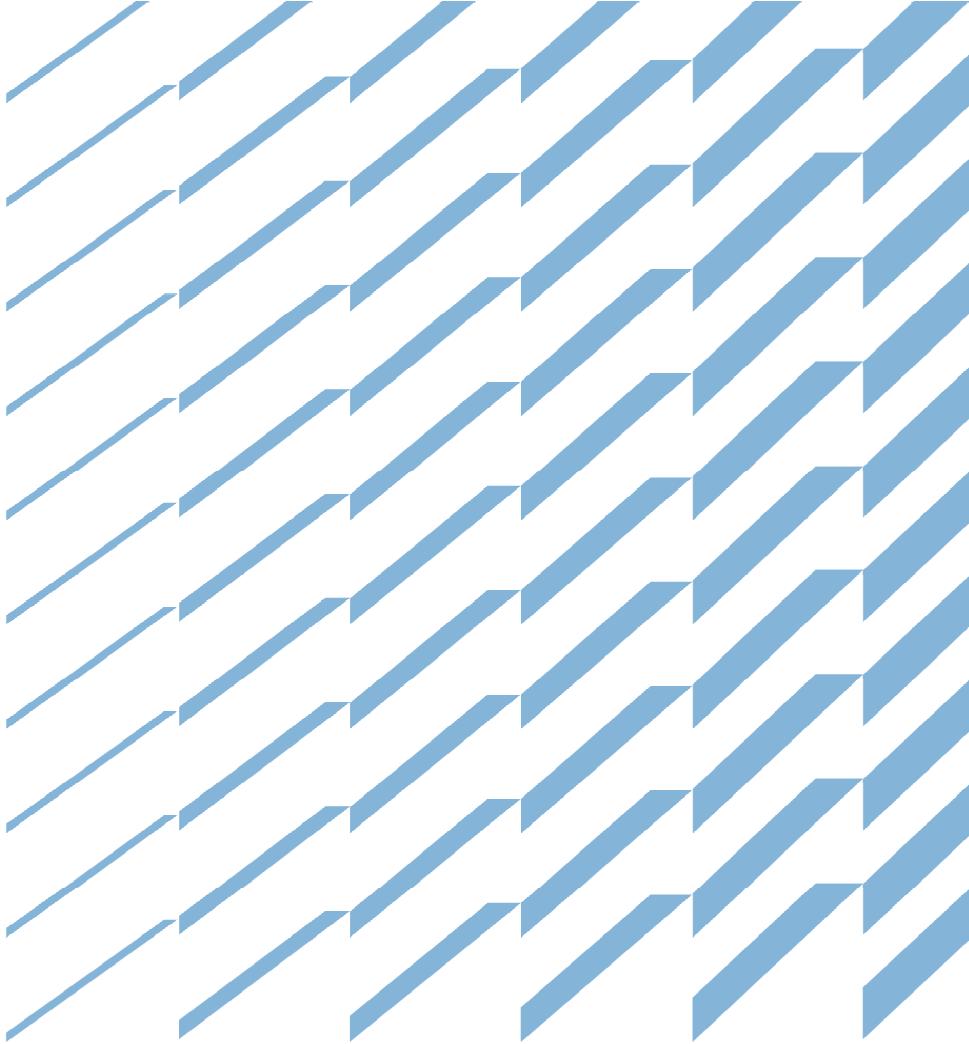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확산하고 창업 성장단계별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도내 소재 업력 3개월 이상인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까지 2.8%의 이차보전 지원
- 중장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중장년 지역창업특화 전문센터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지역창업특화 전문센터)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기술기반 창업 촉진과 빅 데이터·AI 등 특화분야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하 기술창업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생명·바이오 등 중점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소를 운영하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지원, 전문가 상담, 창업교육,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함
 - 전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홍보 지원 등을 지원하고, 군산 및 익산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함
 - 2024년 세 개 센터의 입주기업은 총 56개 사로 이 중 35개 기업이 신규 창업하였고, 40명이 고용되어 10,857백만원 매출을 기록하였음

[표 3-13] 2024년 중장년기술센터 사업 성과

구분	입주기업	고용	신규창업	매출(백만원)
합계	56	40	35	10,857
전주	19	13	13	1,847
군산	18	2	7	596
익산	19	25	15	8,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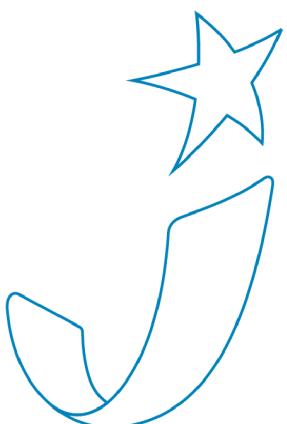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제4장

기술창업 실태분석

1. 전북 기술창업 실태분석
2. 전북 기술창업 기업 심층 인터뷰
3. 소결



제4장 기술창업 실태분석

1. 전북 기술창업 실태분석

가. 전북 창업기업 현황 분석

■ 전북 창업 현황

- 전북의 창업기업은 '24년 기준, '22년 대비 6.68%가 증가한 수치임
 -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9.80%)이고, 정보통신업(33.9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9.10%)가 뒤를 이음
 - 최근 3년간 부동산업(-37.26%)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제조업(-15.95%)가 그 뒤를 이었음

[표 4-1] 전북 창업기업 업종별 현황

구분	전북 창업기업 수(개)			2년간 증가율(%)
	2022	2023	2024	
소계	41,223	43,367	43,975	6.68
농업, 임업 및 어업 및 광업	1,110	1,098	1,050	-5.41
제조업	1,210	1,131	1,017	-15.9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788	7,248	7,032	21.4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	16	20	17.65
건설업	2,974	2,947	2,687	-9.65
서비스업	11,804	11,727	10,939	-7.33
운수 및 창고업	2,053	1,825	2,016	-1.80
숙박 및 음식점업	5,734	6,066	5,634	-1.74
정보통신업	468	673	627	33.97
금융 및 보험업	80	102	93	16.25
부동산업	3,905	2,632	2,450	-37.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7	1,054	943	-7.2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52	1,068	1,229	29.10
교육 서비스업	1,130	1,128	1,115	-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1	120	97	-12.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49	795	765	-9.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21	3,737	6,261	209.80

자료: KOSIS

- 기술창업 내에서 지역별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3년 기준 전북은 중하위 수준임
 - 기술창업 내에서 지역별 차지하는 비중을 '24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경기(32.3%), 서울(23.84%)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세종(0.8%), 제주(1.17%), 울산(1.56%), 강원(2.11%) 순으로 낮았고, 전북은 2.25%로 전국에서 12위 수준임

[표 4-2] 기술창업의 지역별 비중 추이

구분	기술기반 창업 기업수(개)			지역 내 기술기반 창업 비중(%)			3년평균 비중(%)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소계	229,416	221,436	214,917	100	100	100	17.82
서울	53,265	52,387	51,231	23.22	23.66	23.84	23.57
부산	11,305	11,521	10,688	4.93	5.20	4.97	5.03
대구	7,678	8,164	7,826	3.35	3.69	3.64	3.56
인천	12,051	12,751	12,740	5.25	5.76	5.93	5.65
광주	5,151	5,082	4,937	2.25	2.30	2.30	2.28
대전	5,207	5,410	5,283	2.27	2.44	2.46	2.39
울산	3,702	3,822	3,359	1.61	1.73	1.56	1.63
세종	1,735	1,832	1,724	0.76	0.83	0.80	0.80
경기	78,312	69,904	69,415	34.14	31.57	32.30	32.67
강원	4,229	4,691	4,538	1.84	2.12	2.11	2.02
충북	5,969	5,515	5,165	2.60	2.49	2.40	2.50
충남	9,004	8,045	7,575	3.92	3.63	3.52	3.69
전북	4,828	5,040	4,832	2.10	2.28	2.25	2.21
전남	4,939	5,109	4,707	2.15	2.31	2.19	2.22
경북	8,065	7,963	7,520	3.52	3.60	3.50	3.54
경남	11,478	11,620	10,856	5.00	5.25	5.05	5.10
제주	2,498	2,580	2,521	1.09	1.17	1.17	1.14

자료: KOSIS

■ 전북 폐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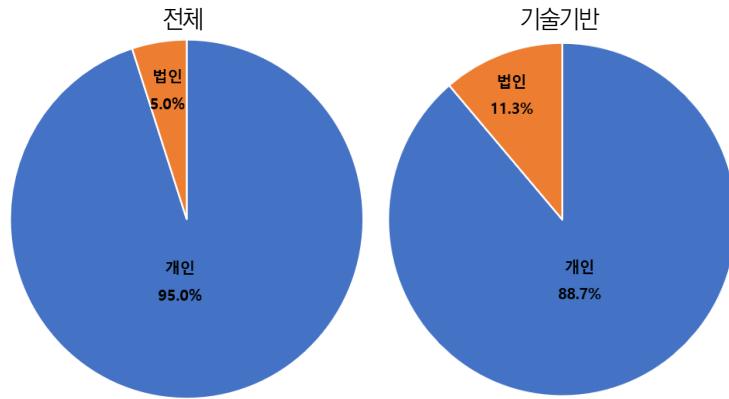
- ’24년 기준, 전북 폐업기업은 총 29,186개이고, 기술기반업종은 3,589개로 전체 대비 12.3%를 차지함
 - 전주시의 폐업은 전체 중 3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16.2%), 익산시(15.2%) 순으로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하였고, 장수군은 0.9%로 비중이 가장 적음
 - 기술기반업종의 경우, 전주시가 폐업이 전체 기술기반업종 중에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17.4%), 익산시(15.4%)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장수군이 0.6%로 비중이 가장 낮음
 - 각 시군 내 폐업기업 중 기술기반업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26.4%이고, 군산시(13.9%), 완주군(13.5%)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안군(7.8%)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표 4-3] 전북 시군별 폐업 현황

시군구	전체	비중	기술기반		
			기업수	비중	전체 대비
전북	29,186	100.0%	3,589	100.0%	12.3%
전주시 완산구	6,084	20.8%	763	21.3%	12.5%
전주시 덕진구	5,202	17.8%	722	20.1%	13.9%
군산시	4,728	16.2%	624	17.4%	13.2%
익산시	4,424	15.2%	552	15.4%	12.5%
정읍시	1,574	5.4%	163	4.5%	10.4%
남원시	1,138	3.9%	102	2.8%	9.0%
김제시	1,313	4.5%	165	4.6%	12.6%
완주군	1,566	5.4%	212	5.9%	13.5%
진안군	351	1.2%	37	1.0%	10.5%
무주군	338	1.2%	37	1.0%	10.9%
장수군	252	0.9%	21	0.6%	8.3%
임실군	348	1.2%	30	0.8%	8.6%
순창군	373	1.3%	32	0.9%	8.6%
고창군	743	2.5%	70	2.0%	9.4%
부안군	752	2.6%	59	1.6%	7.8%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창업기업 동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대부분의 폐업은 전체 기업 중 95%이상이 개인기업임
 - 기술기반의 경우, 개인이 88.7%로 전체 비중에 비해 적은편이며, 법인이 11.3%를 차지함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창업기업 동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그림 4-1] 조직형태별 폐업 현황

[표 4-4] 조직형태별 폐업 현황

구분	전체	기술기반
총계	29,186	3,589
개인	27,726(95.0%)	3,185(88.7%)
법인	1,460(5.0%)	404(11.3%)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창업기업 동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전북 기업의 폐업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함
 - 전체 폐업 업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31.8%를, 숙박 및 음식업이 18.8%를 차지하고 있어 두 업종에서 50.6%의 비중을 차지함
 - 기술기반업종 중에서 살펴보면, 제조업(30.1%), 교육서비스업(25.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4%), 사업시설 관리, 상버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7%), 정보통신업(11.0%) 등의 순임

[표 4-5] 업종별 폐업 현황

업종	폐업수	비율
panel A. 전체 업종별 폐업		
총계	29,186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477	1.6%
광업	6	0.0%
제조업	1,079	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69	5.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7	0.1%
건설업	1,950	6.7%
도매 및 소매업	9,287	31.8%
운수 및 창고업	1,732	5.9%
숙박 및 음식점업	5,477	18.8%
정보통신업	396	1.4%
금융 및 보험업	82	0.3%
부동산업	1,968	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3	1.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86	2.4%
교육서비스업	902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35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68	7.1%
기타	4	0.0%
panel B. 기술기반 업종별 폐업		
총계	3,589	100.0%
제조업	1,079	30.1%
정보통신업	396	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3	15.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20	11.7%
교육서비스업	902	2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	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1	4.2%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창업기업 동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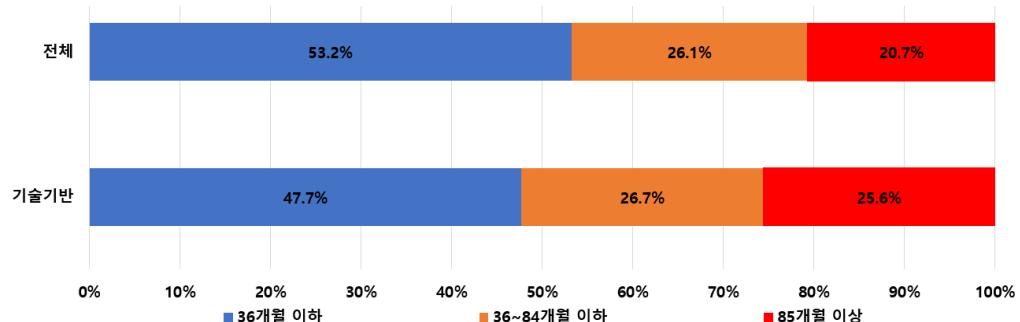
- 연령대별 폐업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전체 폐업 비중이 가장 높고, 기술기반업종의 경우, 50대의 폐업 비중이 가장 높음
 - 전체 폐업은 청년층 24%, 중장년층 76%이고, 기술기반업종은 청년층 24.5%, 중장년층이 75.5%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로 중장년층에서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표 4-6] 연령대별 폐업 현황

세대·연령	전체		기술업종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전체	29,186	100.0%	3,589	100.0%	
청년층	20대 이하	2,167	7.4%	279	7.8%
	30대	4,858	16.6%	598	16.7%
중장년층	40대	6,272	21.5%	886	24.7%
	50대	7,406	25.4%	946	26.4%
	60세 이상	8,483	29.1%	880	24.5%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창업기업 동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업력별 폐업은 36개월 이하가 5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기반업종은 36개월 이하가 47.7%로 나타남
 - 창업초기단계로 볼 수 있는 36개월 이하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술기반업종은 전체 평균에 비해 창업초기단계의 폐업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창업기업 동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그림 4-2] 업력별 폐업 현황

■ 전북 기술창업 실태조사²⁾

- 2024년 5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북 기술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기술창업 기업이 24.1%(79개사),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이 75.9%(249개사)로 나타남

[표 4-7] 전북 기술창업 기업 중 청년과 중장년 기업의 비율

구분	기업 수	비중
청년	79	24.1%
중장년	249	75.9%
합 계	328	100%

* 주 : 501개 기업 중 대표자 연령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구분

- 기술창업 기업의 71.1%는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28.9%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 형태 간 차이가 0.6%에 불과하였으나,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 형태 간 차이가 41.6%로 나타나는 등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기업 유형 특성

구분	법인	개인	계
청년	40 (12.4%)	38 (11.8%)	78 (24.2%)
중장년	189 (58.7%)	55 (17.1%)	244 (75.8%)
합 계	229 (71.1%)	93 (28.9%)	322 (100%)

-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39.6%는 기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B2B 형태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형태의 비즈니스는 30.5%, 복합 형태의 비즈니스는 23.9%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형태의 비즈니스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형태의 비즈니스가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전북 기술창업 실태조사에 활용된 자료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생태계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실시한 기술창업 실태조사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작성함

[표 4-9]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

구분	B2B	B2C	B2G	해외수출	복합	합계
청년	20 (27%)	31 (41.9%)	2 (2.7%)	- (-)	21 (28.4%)	74 (100%)
중장년	93 (44.1%)	56 (26.5%)	14 (6.6%)	1 (0.5%)	47 (22.3%)	211 (100%)
합계	113 (39.6%)	87 (30.5%)	16 (5.6%)	1 (0.4%)	68 (23.9%)	285 (100%)

-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90.2%는 전북 내 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7.9%는 시 지역 중에서도 전주시 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창업 기업 중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단 4개사(5.1%)만 군 지역에 본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25개사(10.2%)가 군 지역에 본사를 입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본사 소재지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시 지역	전주	47 (59.5%)	140 (57.4%)
	군산	9 (11.4%)	36 (14.8%)
	익산	9 (11.4%)	27 (11.1%)
	정읍	1 (1.3%)	7 (2.9%)
	남원	1 (1.3%)	1 (0.4%)
	김제	7 (8.9%)	6 (2.5%)
군 지역	완주	1 (1.3%)	16 (6.6%)
	진안	2 (2.5%)	3 (1.2%)
	장수	- (-)	1 (0.4%)
	임실	- (-)	- (-)
	순창	- (-)	2 (0.8%)
	고창	1 (1.3%)	1 (0.4%)
	부안	- (-)	2 (0.8%)
전북 외	1 (1.3%)	2 (0.8%)	3 (0.9%)
합계	79 (100%)	244 (100%)	323 (100%)

-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44.1%는 기업이 성장 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장 진입 단계라고 응답한 기업은 33.3%, 창업 후 개발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2%로 나타남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성숙 단계 이전 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 중 5.4%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 기술창업 기업 중 성숙 단계에 도달한 기업의 비중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전북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	창업 후 가입단계	시장 진입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기타	합계
청년	13 (17.6%)	25 (33.8%)	36 (48.6%)	- (-)	- (-)	74 (100%)
중장년	41 (18.4%)	74 (33.2%)	95 (42.6%)	12 (5.4%)	1 (0.4%)	223 (100%)
합계	54 (18.2%)	99 (33.3%)	131 (44.1%)	12 (4%)	1 (0.3%)	297 (100%)

- 전북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의 창업 경험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이 처음 창업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9.0%, 이전에 창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1.0%로 나타남

[표 4-12] 현재 운영 기업 이전의 창업 경험

구분	처음 창업	이전 창업 경험 보유	합계
청년	52 (65.8%)	27 (34.2%)	79 (100%)
중장년	138 (56.8%)	105 (43.2%)	243 (100%)
합계	190 (59%)	132 (41%)	322 (100%)

- 이전 창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창업자 중 창업횟수에 대해 응답한 기업은 116개사였고, 평균 2.4회의 창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평균 2.3회,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평균 2.4회 창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 4-13] 평균 창업시도횟수

구분	평균 창업시도횟수
청년	2.3
중장년	2.4
평균	2.4

- 창업 동기에 대해서는 전북 기술창업의 38%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창업하였다라는 응답도 36.1%에 달함
 - 청년 기술창업자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창업하였다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5.4%, ‘경제적으로 자수성가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16.5% 순으로 나타남
 - 중장년 기술창업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창업하였다라는 응답이 33.5%, ‘경제적으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8.8%로 뒤를 이었음

-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창업 자금 확보 관련 문제'가 29.1%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이 17.9%, '창업 과정에서의 생계유지 문제'가 13.9%로 뒤를 이었음

- 청년 기술창업자는 1순위가 '창업 자금 확보 관련 문제'가 21.8%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창업 과정에서의 생계유지 문제'(9.1%), 3순위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7.3%)로 나타남
- 중장년 기술창업자는 1순위가 '창업 자금 확보 관련 문제'가 19.7%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7.9%), 3순위는 '창업 과정에서의 생계유지 문제'(6.5%)로 응답하였음

[표 4-14]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구분	창업 이미지 및 이미지의 부재	창업 자금 확보 관련문제	창업에 대한 전반적 자신경험 부족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창업 과정 에서의 생계유지 문제	기존 직업으로 인한 행복 어려움	기존 동 지인 만류	일-가정 양립 어려움	각종 규제	기타	합 계
청년	1순위	6 2.7%	48 21.8%	7 3.2%	1 0.5%	0.0%	2.3%	0.5%	0.0%	0.0%	1.4%	3.6% 35.9%
	2순위	8 3.6%	10 4.5%	16 7.3%	8 3.6%	0.0%	9.1%	1.4%	0.0%	0.9%	1.4%	2.7% 34.5%
	3순위	5 2.3%	5 2.3%	16 7.3%	11 5.0%	1 0.5%	4.1%	1.4%	0.9%	1.4%	2.3%	2.3% 29.5%
	소계	19 8.6%	63 28.6%	39 17.7%	20 9.1%	1 0.5%	34 15.5%	7 3.2%	2 0.9%	5 2.3%	11 5.0%	19 8.6% 220 100%
	합계	33 4.7%	139 19.7%	38 5.4%	6 0.9%	0.3%	13 1.8%	2 0.3%	1 0.1%	3 0.4%	4 0.6%	7 1.0% 248 35.2%
중장년	1순위	21 3.0%	45 6.4%	56 7.9%	28 4.0%	5 0.7%	45 6.4%	11 1.6%	11 0.0%	10 1.4%	4 0.6%	19 2.7% 244 34.6%
	2순위	23 3.3%	22 3.1%	33 4.7%	46 6.5%	8 1.1%	37 5.2%	12 1.7%	3 0.4%	9 1.3%	6 0.9%	14 2.0% 213 30.2%
	3순위	77 10.9%	206 29.2%	127 18.0%	80 11.3%	15 2.1%	95 13.5%	25 3.5%	4 0.6%	22 3.1%	14 2.0%	40 5.7% 705 100%
	소계	96 10.4%	269 29.1%	166 17.9%	100 10.8%	16 1.7%	129 13.9%	32 3.5%	6 0.6%	27 2.9%	25 2.7%	59 6.4% 925 100%
	합계											

- 외부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술창업 기업의 43.5%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34.8%는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21.6%만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자는 외부 조력 수혜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0.3%로 가장 많았고, 정보 부족, 네트워크 부족, 조력자 퀄리티 담보 부재 등의 사유를 조력 수혜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답변하였음

- 중장년 기술창업자는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4.5%,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36.1%,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은 19.4%에 불과하였고, 전문가의 조력에 대한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실질적 조력 인프라의 부재, 경쟁자에 대한 아이템 유출 등을 조력 수혜를 받기 어려운 사유로 답변하였음

[표 4-15] 외부 조력 수혜 여부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조력을 받기 무척 어렵다	7 (9.1%)	32 (13%)	39 (12%)
조력을 받기 어렵다	17 (22.1%)	57 (23.1%)	74 (22.8%)
그저 그렇다	31 (40.3%)	110 (44.5%)	141 (43.5%)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7 (22.1%)	45 (18.2%)	62 (19.1%)
아주 쉽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	5 (6.5%)	3 (1.2%)	8 (2.5%)
합계	77 (100%)	247 (100%)	324 (100%)

- 전북 내 기술창업 기업이 창업 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육은 '창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31.4%, '기술창업 분야 창업특화교육'이 24.0%, '창업 기회 탐색 능력 제고'가 21.1%로 뒤를 이었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29.4%, '기술창업 분야 창업특화교육'이 26.5%, '창업 기회 탐색 능력 제고'가 21.2%로 응답함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32.0%, '기술창업 분야 창업특화교육'이 23.1%, '창업 기회 탐색 능력 제고'가 21.1%로 응답함
 - 기타 필요한 교육 분야로는 사업의 구조, 아이템 선정, 경쟁력 확보 방향, 자금확보 및 지원기관 안내, 투자유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4-16] 창업 시 필요한 교육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창업환경의 이해	18 (10.6%)	54 (11%)	72 (10.9%)
기업가정신	15 (8.8%)	54 (11%)	69 (10.4%)
창업 기회 탐색 능력 제고	36 (21.2%)	104 (21.1%)	140 (21.1%)
창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	50 (29.4%)	158 (32%)	208 (31.4%)
기술창업 분야 창업특화교육	45 (26.5%)	114 (23.1%)	159 (24%)
기타	6 (3.5%)	9 (1.8%)	15 (2.3%)
합계	170 (100%)	493 (100%)	663 (100%)

- 전북 내 기술창업 기업이 창업 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실습과정은 ‘창업실전프로그램’이 39.1%, ‘전문가 멘토링 기회’가 19.1%, ‘창업 경진대회 참여와 멘토링’이 14.3%로 뒤를 이었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실전프로그램’이 40.5%, ‘창업 및 벤처기업 내 인턴십’, ‘전문가 멘토링 기회’가 각각 16.7%로 나타남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실전프로그램’ 39.1%, ‘전문가 멘토링 기회’ 19.8%, ‘창업 경진대회 참여와 멘토링’ 16.1% 순으로 응답함
 - 기타 필요한 실습 분야로는 회계, 마케팅, 기술사업화, 시장분석 등에 대한 실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4-17] 창업 시 필요한 실습과정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창업 및 벤처기업 내 인턴십	21 (16.7%)	72 (14.7%)	93 (15.1%)
박람회, 전시회 등 현장 견학	16 (12.7%)	45 (9.2%)	61 (9.9%)
창업경진대회 참여와 멘토링	9 (7.1%)	79 (16.1%)	88 (14.3%)
전문가 멘토링 기회	21 (16.7%)	97 (19.8%)	118 (19.1%)
R&D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실전 프로그램	51 (40.5%)	190 (38.7%)	241 (39.1%)
기타	8 (6.3%)	8 (1.6%)	16 (2.6%)
합계	126 (100%)	491 (100%)	617 (100%)

-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51.3%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53.8%는 아주 만족한다고 답변함

[표 4-18] 창업 콘텐츠 만족 여부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36 (46.2%)	123 (53.0%)	159 (51.3%)
아주 만족한다	42 (53.8%)	109 (47.0%)	151 (48.7%)
합계	78 (100%)	232 (100%)	310 (100%)

- 창업교육 및 멘토링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기술창업 기업의 39.8%는 맞춤형 멘토링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32.5%는 멘토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자는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2%였고,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멘토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23.3%로 나타남
 - 중장년 기술창업자는 맞춤형 멘토링이 39.0%, 멘토의 역량이 32.6%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멘토링 사업의 횟수보다는 동종업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기술사업화 연결, 제품 중심 전후방 기업 간 연결 등 깊이에 대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존재함

[표 4-19] 창업교육 및 멘토링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우수한 교육콘텐츠	10	(23.3%)	25	(17.7%)	32 (19.3%)
맞춤형 멘토링(1:1)	13	(30.2%)	55	(39%)	66 (39.8%)
멘토의 역량	10	(23.3%)	46	(32.6%)	54 (32.5%)
교육시설(환경)	3	(7%)	11	(7.8%)	13 (7.8%)
기타	7	(16.3%)	4	(2.8%)	1 (0.6%)
합계	43	(100%)	141	(100%)	166 (100%)

- 반면 창업교육 및 멘토링에 만족한다는 응답 사유로는 멘토링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적절한 기회들이 제공되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창업아이템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독자개발하였다는 답변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술이전 받았다는 답변은 26.4%로 나타남

[표 4-20]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의 출처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독자개발	65	(83.3%)	206	(83.7%)	271 (83.6%)
기술이전	13	(16.7%)	40	(16.3%)	53 (26.4%)
합계	78	(100%)	246	(100%)	324 (100%)

- 기술이전 주체의 기관별 유형에 대해서는 중기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연구)기관이 각각 21.9%를 차지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 또는 해외기관에서 기술이전을 받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룸

[표 4-21] 기술이전 주체의 유형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대학, 대학원	5	(23.8%)	16	(21.3%)	21 (21.9%)
공공(연구)기관	5	(23.8%)	16	(21.3%)	21 (21.9%)
중기업	6	(28.6%)	29	(38.7%)	35 (36.5%)
대기업	0	(0%)	3	(4%)	3 (3.1%)
기타	5	(23.8%)	11	(14.7%)	16 (16.7%)
합계	21	(100%)	75	(100%)	96 (100%)

- 외부 투자유치 여부에 대해 전체 기업의 83.0%는 투자유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9.7%,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19.3%만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했다고 응답함

[표 4-22] 외부 투자유치 여부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투자유치 했다	7 (9.7%)	44 (19.3%)	51 (17.0%)
투자유치하지 않았다	65 (90.3%)	184 (80.7%)	249 (83.0%)
합 계	72 (100%)	228 (100%)	300 (100%)

- 투자 유치 금액에 대해서 전체 47.2%가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응답도 22.6%로 나타남

[표 4-23] 투자 유치 금액 규모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1억원 미만	2 (28.6%)	7 (15.2%)	9 (17.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 (57.1%)	21 (45.7%)	25 (47.2%)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 (14.3%)	6 (13.0%)	7 (13.2%)
10억원 이상	0 (0.0%)	12 (26.1%)	12 (22.6%)
합 계	7 (100%)	46 (100%)	53 (100%)

- 투자금 유치 대상으로 기타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고, 개인투자자(22.2%), 엔젤투자자(20.4%)가 뒤를 이었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개인투자자, AC, VC 가 각각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엔젤투자자(14.3%)로 나타남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기타(29.8%), 개인투자자(21.3%), 엔젤투자자(21.3%), VC(17%) 순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JB기술지주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응답함

[표 4-24] 투자금 유치 대상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개인투자자	2 (28.6%)	10 (21.3%)	12 (22.2%)
엔젤투자자	1 (14.3%)	10 (21.3%)	11 (20.4%)
AC	2 (28.6%)	5 (10.6%)	7 (13%)
VC	2 (28.6%)	8 (17%)	10 (18.5%)
기타	0 (0%)	14 (29.8%)	14 (25.9%)
합 계	7 (100%)	47 (100%)	54 (100%)

- 투자 유치 목적 및 필요 사유에 대해서 전체 기업의 48.3%가 사업운영비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시설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응답은 31.5%,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18.8%로 뒤를 이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사업운영비(53.3%), 시설장비 구축(26.2%),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18.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사업운영비(46.8%), 시설장비 구축(33.2%),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18.8%) 순으로 응답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연구개발자금 및 정부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자부담금 마련 등이라고 응답함

[표 4-25] 투자 유치 목적 및 필요 사유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시설장비구축	28 (26.2%)	113 (33.2%)	141 (31.5%)
사업운영비	57 (53.3%)	159 (46.8%)	216 (48.3%)
인건비(신규인력채용)	20 (18.7%)	64 (18.8%)	84 (18.8%)
기타	2 (1.9%)	4 (1.2%)	6 (1.3%)
합 계	107 (100%)	340 (100%)	447 (100%)

- 투자유치의 적정 시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52%는 창업 후 1년 이상 ~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창업 후 3년 이상 ~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29.9% 순으로 나타남
 - 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54.1%,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51.3%가 창업 후 1년 이상 ~ 3년 미만이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응답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시기에 따른 구분보다 상황에따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표 4-26] 투자유치 적정 시기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창업 후 1년 미만	4	(5.4%)	18	(7.8%)	22	(7.2%)
창업 후 1년 이상 ~ 3년 미만	40	(54.1%)	118	(51.3%)	158	(52%)
창업 후 3년 이상 ~ 5년 미만	18	(24.3%)	73	(31.7%)	91	(29.9%)
창업 후 5년 이상 ~ 7년 미만	7	(9.5%)	16	(7%)	23	(7.6%)
기타	5	(6.8%)	5	(2.2%)	10	(3.3%)
합 계	74	(100%)	230	(100%)	304	(100%)

- 투자를 받고 싶은 기관에 대해서는 35.7%가 엔젤투자자를, 32.8%가 VC, 12.7%가 AC로 답변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엔젤투자자(37.5%), VC(31.9%), 기타(12.5%)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엔젤투자자(35.2%), VC(33.1%), AC(13.1%)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표 4-27] 희망 투자 주체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개인투자자	5	(6.9%)	24	(10.2%)	29	(9.4%)
엔젤투자자	27	(37.5%)	83	(35.2%)	110	(35.7%)
AC	8	(11.1%)	31	(13.1%)	39	(12.7%)
VC	23	(31.9%)	78	(33.1%)	101	(32.8%)
기타	9	(12.5%)	20	(8.5%)	29	(9.4%)
합 계	72	(100%)	236	(100%)	308	(100%)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에 관해 응답한 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로 나타났으며, 경영인증 등의 인증은 기업당 평균 1.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의 경우 청년 기업은 평균 4.1개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년 기업(3.6개)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등록은 중장년 기업이 평균 6.1개를 보유하고 있어 청년 기업(1.9개)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중장년 기업(1.7개)이 청년 기업(1.2개)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실용신안 등록은

청년 기업이 평균 3.3개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년 기업(1.7개)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은 청년 기업이 평균 5.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년 기업이 2.4개를 보유해 청년기업이 훨씬 더 많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술인증(NET, NEF)의 경우에도 청년기업은 평균 1개를 보유한 반면, 중장년 기업은 평균 3.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4-28] 자식자산권 및 인증 현황

구분	청년	중장년	평균
특허출원	4.1	3.6	3.7
특허등록	1.9	6.1	5.3
실용신안 출원	1.2	1.7	1.5
실용신안 등록	3.3	1.7	2.1
디자인	3.0	3.2	3.2
소프트웨어/프로그램	5.4	2.4	3.0
기술인증(NET,NEP등)	1.0	3.1	3.0
벤처기업 확인*	0.2	0.4	0.3
경영인증(이노비즈,메인비즈 등)	1.4	1.3	1.3
ISO 등 품질 인증	1.8	1.9	1.9

주 : *는 응답 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비율임

-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여부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47.2%가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남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44.6%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의 55.4%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4-29]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여부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3 (17.6%)	69 (28.5%)	82 (25.9%)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7 (9.5%)	45 (18.6%)	52 (16.5%)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	13 (17.6%)	20 (8.3%)	33 (10.4%)
모두 미보유	41 (55.4%)	108 (44.6%)	149 (47.2%)
합 계	74 (100%)	242 (100%)	316 (100%)

- 현재 사업장 입지 여건은 대학, 연구기관(41.3%), 일반 상업지역(31.4%), 일반 주택지역(11.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일반 상업지역(35.2%), 대학, 연구기관(29.6%), 일반 주택지역(19.7%)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대학, 연구기관(46.2%), 일반상업지역(29.8%), 산업단지(10.5%) 순으로 응답해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장 입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30] 현재 사업장 입지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대학, 연구기관(창업보육센터, 연구실 등)	21 (29.6%)	79 (46.2%)	100 (41.3%)
산업단지(산업단지, 벤처inzan지구, 농공단지 등)	9 (12.7%)	18 (10.5%)	27 (11.2%)
일반상업지역	25 (35.2%)	51 (29.8%)	76 (31.4%)
일반주택지역	14 (19.7%)	14 (8.2%)	28 (11.6%)
기타	2 (2.8%)	9 (5.3%)	11 (4.5%)
합 계	71 (100%)	171 (100%)	242 (100%)

- 현재 사업장 입지 선정 사유로는 기타(43.8%), 취득 비용이 저렴(14.8%),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의 용이성(14.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기타(45.9%), 취득 비용이 저렴(20.9%),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의 용이성(15.1%)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도 기타(43.2%), 취득 비용이 저렴(22.4%),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의 용이성(14.7%) 순으로 응답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자금의 부족, 출퇴근 및 주변 시설의 편의설 등에 대해 응답하였음

[표 4-31] 현재 사업장 입지 선정 사유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상품 원료 및 재료의 빠른 수급	5 (2.9%)	20 (3.5%)	25 (3.3%)
소비자 대상 공급의 용이성	9 (5.2%)	18 (3.1%)	27 (3.6%)
상품 운송비 절감	2 (1.2%)	7 (1.2%)	9 (1.2%)
상품 생산, 제공 인력 수급의 용이성	7 (4.1%)	27 (4.7%)	34 (4.5%)
관련 산업 집적에 따른 상품 개발 유리	8 (4.7%)	42 (7.3%)	50 (6.7%)
사무실, 공장 등 취득 비용 저렴	36 (20.9%)	129 (22.4%)	165 (22%)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의 용이성	26 (15.1%)	85 (14.7%)	111 (14.8%)
기타	79 (45.9%)	249 (43.2%)	328 (43.8%)
합 계	172 (100%)	577 (100%)	749 (100%)

- 사업장 입주형태에 대해서는 임대(80.6%), 자가(17.2%), 기타(2.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임대 비율이 85.9%, 자가 비율이 14.1%였으나, 중장년 기술 창업 기업은 임대 비율이 78.8%, 자가 비율이 18.3%, 기타 비율이 2.9%로 나타남

[표 4-32] 사업장 입주 형태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자가	11 (14.1%)	44 (18.3%)	55 (17.2%)
임대	67 (85.9%)	190 (78.8%)	257 (80.6%)
기타	0 (0%)	7 (2.9%)	7 (2.2%)
합 계	78 (100%)	241 (100%)	319 (100%)

- 창업 단계별 필요 지원 사업에 대해 창업 이전에는 창업공간(25.6%), 교육 및 멘토링(24.3%), 제품개발(21.2%) 순으로 응답하였고, 1~3년차에는 사업화지원(26.7%), 제품개발(22.3%), 마케팅(11.6%) 순으로, 4~7년 차에는 후속 지원사업 연계(26.3%), 사업화 지원(18.4%), 마케팅(16.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 이전에는 교육 및 멘토링(26.9%), 제품개발(22.3%), 창업공간(17.3%) 순으로 응답하였고, 1~3년차에는 사업화지원(31.2%), 제품개발(17.2%), 마케팅(14%) 순으로, 4~7년 차에는 후속 지원사업 연계(25.2%), 사업화 지원(17.0%), 마케팅(15.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 이전에는 창업공간(28.8%), 교육 및 멘토링(23.2%), 제품개발(20.7%) 순으로 응답하였고, 1~3년차에는 사업화지원(25.0%), 제품개발(24.3%), 마케팅(10.6%) 순으로, 4~7년 차에는 후속 지원사업 연계(26.8%), 사업화 지원(19%), 마케팅(17.3%)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33] 창업 단계별 필요 지원 사업

창업 이전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교육 및 멘토링	35 (26.9%)	75 (23.2%)	110 (24.3%)
	창업공간	23 (17.7%)	93 (28.8%)	116 (25.6%)
	제품개발	29 (22.3%)	67 (20.7%)	96 (21.2%)
	네트워킹	12 (9.2%)	13 (4%)	25 (5.5%)
	사업화지원	19 (14.6%)	68 (21.1%)	87 (19.2%)
	후속 지원사업 연계	2 (1.5%)	6 (1.9%)	8 (1.8%)
	해외진출	1 (0.8%)	1 (0.3%)	2 (0.4%)
	마케팅	5 (3.8%)	0 (0%)	5 (1.1%)
	특허 및 지적재산권	4 (3.1%)	0 (0%)	4 (0.9%)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소계	130	(29.1%)	323	(28.7%)	453	(28.8%)
1~3년 차	교육 및 멘토링	9	(5.7%)	7	(1.7%)	16	(2.9%)
	창업공간	11	(7%)	33	(8.2%)	44	(7.8%)
	제품개발	27	(17.2%)	98	(24.3%)	125	(22.3%)
	네트워킹	14	(8.9%)	41	(10.1%)	55	(9.8%)
	사업화지원	49	(31.2%)	101	(25%)	150	(26.7%)
	후속 지원사업 연계	14	(8.9%)	41	(10.1%)	55	(9.8%)
	해외진출	5	(3.2%)	6	(1.5%)	11	(2%)
	마케팅	22	(14%)	43	(10.6%)	65	(11.6%)
	특허 및 지적재산권	6	(3.8%)	34	(8.4%)	40	(7.1%)
	소계	157	(35.2%)	404	(35.8%)	561	(35.7%)
4~7년 차	교육 및 멘토링	4	(2.5%)	4	(1%)	8	(1.4%)
	창업공간	5	(3.1%)	5	(1.3%)	10	(1.8%)
	제품개발	14	(8.8%)	22	(5.5%)	36	(6.4%)
	네트워킹	14	(8.8%)	37	(9.3%)	51	(9.1%)
	사업화지원	27	(17%)	76	(19%)	103	(18.4%)
	후속 지원사업 연계	40	(25.2%)	107	(26.8%)	147	(26.3%)
	해외진출	20	(12.6%)	55	(13.8%)	75	(13.4%)
	마케팅	24	(15.1%)	69	(17.3%)	93	(16.6%)
	특허 및 지적재산권	11	(6.9%)	25	(6.3%)	36	(6.4%)
	소계	159	(35.7%)	400	(35.5%)	559	(35.5%)
합계		446	(100%)	1127	(100%)	1573	(100%)

- 창업지원사업 별 수혜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혜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만족도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변확대) 창업교육을 받은 기업은 62.8%였고, 만족도는 평균 3.8점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52.8%, 평균 만족도는 3.8점,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4.4%, 평균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남
 - (사업화 지원) 자금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76.2%, 평균 만족도는 4.0점, 멘토링 및 컨설팅 참여 기업은 68.7%, 평균 만족도는 3.6점, 국내외 네트워킹 사업 참여 기업은 34.8%, 평균 만족도는 3.6점, 특허 및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55.8%, 평균 만족도는 4.0점으로 나타남
 - (인프라 구축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79.8%, 평균 만족도는 4.2점으로 미수혜 기업과의 평균 만족도 차이(2.2점)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시설 및 공간활용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48.1%, 평균 만족도는 3.9점, 창업 아이템 고도화 사업 참여 기업은 50.5%, 평균 만족도는 4.1점, 고용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41.6%, 평균 만족도는 3.9점,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60.3%, 평균 만족도는 4.1점으로 나타남

[표 4-34] 창업지원사업 별 수혜 경험과 만족도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평균
저변확대	① 창업교육(창업아카데미 등)	있다	49 (80.3%)	91 (56.2%)	140 (62.8%)
		없다	12 (19.7%)	71 (43.8%)	83 (37.2%)
		소계	61 (100%)	162 (100%)	223 (100%)
	② 창업행사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	있다	38 (61.3%)	77 (49.4%)	115 (52.8%)
		없다	24 (38.7%)	79 (50.6%)	103 (47.2%)
		소계	62 (100%)	156 (100%)	218 (100%)
	③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있다	16 (27.0%)	33 (23.1%)	49 (24.4%)
		없다	42 (72.4%)	110 (76.9%)	152 (75.6%)
		소계	58 (100%)	143 (100%)	201 (100%)
사업화지원	④ 자금지원 (출연, 보조, 융자, 보증 등)	있다	55 (84.6%)	108 (72.5%)	163 (76.2%)
		없다	10 (15.4%)	41 (27.5%)	51 (23.8%)
		소계	65 (100%)	149 (100%)	214 (100%)
	⑤ 멘토링 및 컨설팅 (자금지원연계 컨설팅 포함)	있다	45 (76.3%)	102 (65.8%)	147 (68.7%)
		없다	14 (23.7%)	53 (34.2%)	67 (31.3%)
		소계	59 (100%)	155 (100%)	214 (100%)
	⑥ 국내외 네트워킹 사업 (연수 및 수출상담 지원 등)	있다	21 (36.2%)	52 (34.2%)	73 (34.8%)
		없다	37 (63.8%)	100 (65.8%)	137 (65.2%)
		소계	58 (100%)	152 (100%)	210 (100%)
	⑦ 특허 및 지식재산권	있다	35 (58.3%)	85 (54.8%)	120 (55.8%)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평균
인 프 라 구 축 사 업	⑧ 시제품 제작 지원	없다	25 (41.7%)	70 (45.2%)	95 (44.2%)	215	3.5	
		소계	60 (100%)	155 (100%)	215 (100%)	4.0		
		있다	50 (79.4%)	124 (80.0%)	174 (79.8%)	44	4.2	
	⑨ 시설 및 공간활용 지원 사업	없다	13 (20.6%)	31 (20.0%)	99 (48.1%)	206	2.0	
		소계	63 (100%)	155 (100%)	218 (100%)	4.2		
		있다	31 (52.5%)	68 (46.3%)	99 (48.1%)	206	4.0	
	⑩ 창업아이템 고도화사업 (R&D 지원사업 등)	없다	28 (47.5%)	79 (53.7%)	107 (51.9%)	208	3.0	
		소계	59 (100%)	147 (100%)	208 (100%)	4.1		
		있다	29 (48.3%)	76 (51.4%)	105 (50.5%)	208	4.1	
	⑪ 고용지원사업	없다	31 (51.7%)	72 (48.6%)	103 (49.5%)	209	3.4	
		소계	60 (100%)	148 (100%)	209 (100%)	4.1		
		있다	24 (40.7%)	63 (42.0%)	87 (41.6%)	209	3.9	
	⑫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없다	35 (59.3%)	87 (58.0%)	122 (58.4%)	209	3.3	
		소계	59 (100%)	150 (100%)	209 (100%)	3.9		
		있다	41 (67.2%)	85 (57.4%)	126 (60.3%)	209	4.2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27.4%), 창업지원사업 신청절차와 행정서류가 복잡해서(23.1%), 요건이 까다로워 통과가능성이 낮아서(19.9%) 순으로 나타남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지원사업 신청절차와 행정서류가 복잡해서(27.5%), 요건이 까다로워 통과가능성이 낮아서(20%),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15.0%),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15.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못해서(30.8%), 창업지원사업 신청절차와 행정서류가 복잡해서(21.9%), 요건이 까다로워 통과가능성이 낮아서(19.9%) 순으로 응답해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 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기타 사유로는 적합한 지원 사업이 없음, 지원사업에 매몰될 수 밖에 없기 때문 등의 응답이 있었음

[표 4-35] 창업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6	(15%)	45	(30.8%)	51 (27.4%)
창업지원사업 신청절차와 행정서류가 복잡해서	11	(27.5%)	32	(21.9%)	43 (23.1%)
신용등급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의 부족	2	(5%)	7	(4.8%)	9 (4.8%)
요건이 까다로워 통과가능성이 낮아서	8	(20%)	29	(19.9%)	37 (19.9%)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6	(15%)	9	(6.2%)	15 (8.1%)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을것으로 판단	3	(7.5%)	18	(12.3%)	21 (11.3%)
자체해결 가능해 지원사업 불필요	1	(2.5%)	2	(1.4%)	3 (1.6%)
기타	3	(7.5%)	4	(2.7%)	7 (3.8%)
합 계	40	(100%)	146	(100%)	186 (100%)

-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1순위로 창업 조기단계 금융지원(32.6%), 2순위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선 지원(11.2%), 3순위 판로 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19.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1순위 및 2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창업 조기단계 금융지원(27%)을 선택하였고, 3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판로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23.2%)을 응답하였음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1순위로 창업 조기단계 금융지원(23.5%), 2순위로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선 지원(18.4%), 3순위로 판로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17.7%)을 선택하였음

[표 4-36] 기출창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1 순 위	창업 진입을 위한 지원제도 (휴, 겸직 창업특례제도)	11 (14.7%)	21 (8.8%)	32 (10.2%)	
	창업 후 성공까지 생계유지 지원정책	16 (21.3%)	25 (10.5%)	41 (13.1%)	
	창업절차의 간소화	5 (6.7%)	14 (5.9%)	19 (6.1%)	
	창업조기단계 금융지원	17 (22.7%)	85 (35.7%)	102 (32.6%)	
	기업가정신 제고 및 창업교육 강화	2 (2.7%)	9 (3.8%)	11 (3.5%)	
	창업세금 감면지원	1 (1.3%)	4 (1.7%)	5 (1.6%)	
	공간 및 시설지원	3 (4.0%)	17 (7.1%)	20 (6.4%)	
	R&D 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	3 (4.0%)	21 (8.8%)	24 (7.7%)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선 지원	8 (10.7%)	15 (6.3%)	23 (7.3%)	
	우수인력 확보 지원	3 (4.0%)	6 (2.5%)	9 (2.9%)	
	판로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	3 (4.0%)	9 (3.8%)	12 (3.8%)	

구분		청년		중장년		합계	
2 순 위	성장단계 금융지원	2	(2.7%)	11	(4.6%)	13	(4.2%)
	기타	1	(1.3%)	1	(0.4%)	2	(0.6%)
	소계	75	(100%)	238	(100%)	313	(100%)
	창업 진입을 위한 지원제도 (휴,겸직 창업특례제도)	1	(1.4%)	7	(3.0%)	8	(2.6%)
	창업 후 성공까지 생계유지 지원정책	7	(9.5%)	16	(6.8%)	23	(7.5%)
	창업절차의 간소화	2	(2.7%)	9	(3.8%)	11	(3.6%)
	창업조기단계 금융지원	20	(27.0%)	31	(13.2%)	51	(16.6%)
	기업가정신 제고 및 창업교육 강화	2	(2.7%)	12	(5.1%)	14	(4.5%)
	창업세금 감면지원	3	(4.1%)	13	(5.6%)	16	(5.2%)
	공간 및 시설지원	7	(9.5%)	25	(10.7%)	32	(10.4%)
	R&D 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	4	(5.4%)	24	(10.3%)	28	(9.1%)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선 지원	13	(17.6%)	43	(18.4%)	56	(18.2%)
	우수인력 확보 지원	6	(8.1%)	16	(6.8%)	22	(7.1%)
	판로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	4	(5.4%)	19	(8.1%)	23	(7.5%)
	성장단계 금융지원	5	(6.8%)	18	(7.7%)	23	(7.5%)
	기타		(0.0%)	1	(0.4%)	1	(0.3%)
	소계	74	(100%)	234	(100%)	308	(100%)
3 순 위	창업 진입을 위한 지원제도 (휴,겸직 창업특례제도)	0	(0.0%)	4	(1.8%)	4	(1.4%)
	창업 후 성공까지 생계유지 지원정책	1	(1.4%)	9	(4.1%)	10	(3.5%)
	창업절차의 간소화	2	(2.9%)	4	(1.8%)	6	(2.1%)
	창업조기단계 금융지원	7	(10.1%)	28	(12.7%)	35	(12.1%)
	기업가정신 제고 및 창업교육 강화	4	(5.8%)	11	(5.0%)	15	(5.2%)
	창업세금 감면지원	6	(8.7%)	11	(5.0%)	17	(5.9%)
	공간 및 시설지원	9	(13.0%)	30	(13.6%)	39	(13.5%)
	R&D 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	7	(10.1%)	12	(5.5%)	19	(6.6%)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선 지원	5	(7.2%)	20	(9.1%)	25	(8.7%)
	우수인력 확보 지원	3	(4.3%)	16	(7.3%)	19	(6.6%)
	판로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	16	(23.2%)	39	(17.7%)	55	(19.0%)
	성장단계 금융지원	9	(13.0%)	36	(16.4%)	45	(15.6%)
	기타	0	(0%)	0	(0%)	0	(0%)
	소계	69	(100%)	220	(100%)	289	(100%)

- 창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4.0점), 시제품 제작(3.9점), 기업지원시설·공간(3.9점)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북 지역 창업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3.4점),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3.3점), 인증·특허 지원(3.2점)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서 응답한 창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4.3점), 시제품 제작(4.1점), 홍보·마케팅 지원(4.0점) 순이었으며, 전북 지역 창업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시제품 제작(3.6점),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3.5점), 홍보·마케팅 지원(3.4점) 순이었음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 응답한 창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3.9점), 시제품 제작(3.9점), 기업지원시설·공간(3.9점) 순이었으며, 전북 지역 창업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시제품 제작(3.4점),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3.3점), 인증·특허 지원(3.2점) 순이었음

[표 4-37] 창업환경 중요도와 전북 창업환경 만족도

구분	중요도			만족도		
	청년	중장년	합계	청년	중장년	합계
지자체 창업육성 적극성	4.3	3.9	4.0	3.5	3.3	3.3
기업지원시설·공간	3.8	3.9	3.9	3.3	3.2	3.2
기획·비즈니스 모델 지원	3.7	3.5	3.6	3.1	3.0	3.0
투자(AC, VC 등)	3.8	3.6	3.7	2.7	2.8	2.8
재무·세무·회계	3.7	3.5	3.5	2.8	2.9	2.9
법률	3.7	3.3	3.4	2.7	2.9	2.8
인력공급	4.0	3.7	3.7	2.5	2.7	2.6
멘토링 지원	3.5	3.4	3.4	3.1	3.2	3.1
기술지원	3.9	3.7	3.8	3.0	3.1	3.1
연구지원	3.8	3.6	3.7	3.0	3.2	3.1
디자인·설계 지원	3.9	3.6	3.6	3.1	3.1	3.1
시제품 제작	4.1	3.9	3.9	3.6	3.3	3.4
시제품 실증	3.9	3.7	3.8	3.1	3.1	3.1
인증·특허 지원	3.8	3.7	3.8	3.3	3.2	3.2
공동장비 활용	3.3	3.4	3.4	2.7	3.0	2.9
홍보·마케팅지원	4.0	3.6	3.7	3.4	3.2	3.2
박람회·전시회	3.6	3.4	3.4	3.2	3.2	3.2
해외판로개척	3.6	3.4	3.4	2.9	2.9	2.9

- 기타 건의사항은 사업화·운영자금·공간 및 장비 제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교육·멘토링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초기 기업보다 생존·사업화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의 운영자금과 판로,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기술, 공간, 장비, 운영자금의 동시 지원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뒤를 이음

[표 4-38] 기타 건의사항

구분	청년	중장년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용역 매칭, 비우처, 고도화 사업 확대 필요 기업 매출 촉진 기회 제공 필요(판로, 마케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성 평가 기간 동안 연속적인 사업화 및 인건비 지원 필요 시제품→양산→판로개척→해외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연계형 지원 필요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자금 설계 교육 필요 사업비 사용 안내, 활용 범위 등 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필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 입찰, 협약, 구매 조건 등 실무형 교육이 필요 재창업자 맞춤 교육 필요 다양한 지원제도의 활용법, 사업비 사용 범위, 기간 등 교육 필요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실무형 멘토링 필요 기술 실현 중심 멘토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마케팅 실무형 멘토링 필요 실제 현장 전문가 중심 멘토링 필요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보다 네트워킹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지역 내 산·학 간 협업 네트워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제조업체와 기관 협업 구조 구축 생존 기업 중심 성장 네트워크 구성 필요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제품화 단계 소량 생산 공간 지원 필요 제조-IT-소재 기업 적합한 공간 부족 식품기업 대상 냉장·냉동 창고, 운송 인프라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용 실험·생산 공간 부족 장기 임대 제도 확대 필요 기업 사용 공간 우선 제공 식품기업 대상 냉장, 냉동 및 운송창고 지원 필요
장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량 생산 장비 및 실증 장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결건조, 소량포장, 센서저울 등 제조 특화장비 지원 필요
금융·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상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필요 사업비 활용 제한 개선(집행 기간과 항목 등) 융자·보증 중심 자금조달 사업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자금 집중형 + 소규모 다양한 트랙 지원형으로 지원 정책을 구성해야 함 R&D, 운영비,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 보증 중심 지원 확대(이차지원보다 실효성이 큼) 보증, 융자 등 중기기업 자금 지원제도 마련 필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할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지원 시 매출 중심 평가가 아닌 업종별 차등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기반 선투자 기업을 대상 평가제도 개선 필요 지원 정책의 정부 직접 운영보다 전문 PM, 기업의 주도가 필요

2. 전북 기술창업 기업 심층 인터뷰

가. 개요

■ 추진 개요

- (목적) 전북 내 본사를 둔 청년 및 중장년 대표 기술창업 기업을 인터뷰 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전북 기술창업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 (일시)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 7일 간 심층 인터뷰 수행
- (대상) 전북 내 본사를 둔 기술창업 기업 중 청년이 대표인 5개 기업, 중장년이 대표인 5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청년과 중장년 각 연령대별 기업을 동일 표본량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전 설계를 하였고,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인터뷰 대상을 선정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창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뷰 및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답변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 생략, 수정, 추가 등이 진행되었음

[표 4-39] 심층 인터뷰 참여 기업 및 참여자 정보

구분	주요 분야	대표자 연령대
A	IT	청년
B	농생명	
C	IT	
D	농생명	
E	농생명	
F	소재, 부품, 장비	중장년
G	소재, 부품, 장비	
H	IT	
I	소재, 부품, 장비	
J	소재, 부품, 장비	

나. 심층 인터뷰 결과

- 심층 인터뷰는 창업동기 및 준비 과정, 사업 운영 및 성장 과정(자금, 인력, 기술개발, 마케팅, 네트워킹 등)에서의 애로사항, 전북의 창업 환경과 지원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의 범주에서 진행하였음

■ 창업동기 및 준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창업동기)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연구실, 기업 프로젝트, 인턴 과정 등에서 기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업을 진행하였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주로 업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불편과 비효율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진행함
- (준비과정) 청년 기술창업 기업은 준비기간이 짧지만 창업 이후 탐색과 실험을 중심으로 초기 창업 과정을 거쳤고,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행이 빠른 특성을 보임

■ 사업운영 및 성장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자금)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 초기 시드자금이 부족해 정부지원 의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중장년 기술창업의 경우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제조·설비 기반 창업이 많아 초기 투자 규모가 매우 큼
 - 두 세대 기술창업 기업 모두 기술은 있으나 실증과 실물 장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초기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나 반복된 IR 참여 등을 통해 기술의 실증 과정과 사업화 진행 과정 프레젠테이션으로 투자를 진행하였음
 - 전북 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투자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AC 및 VC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존재하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열린 IR에 참여해 투자를 유치받고 전북 내 창업지원기관을 소개받은 사례도 존재함

-
- 매출이 발생해야 투자 유치가 수월하지만 서울에 비해 경쟁이 덜하고 전북도에서 조성한 펀드들이 있어 기술력 있고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환경은 오히려 좋다고 평가함
 - 보증서를 확보한 이후에도, 전북 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수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연계해준 타 지역 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지원 정책과 금융기관 간 연계가 미흡함
 - (인력확보) 전북 지역에서의 기술 인력 확보는 전 세대 기술창업 기업에서 겪는 어려움이며, 영업·실무형 인력의 확보도 전주 외 지역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초기 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속년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5년 근속 시 1달 휴가 등 복지제도로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함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숙련기술 인력 확보는 청년 기술창업 기업에 비해 수월하나 실무형 인력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음
 - (기술개발 및 R&D)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및 미래 성장 분야로의 진입이 빠른 편이나 실증과 규제 테스트 과정이 가장 큰 장벽이자 기술개발을 하나의 허들로 인식하는 경우도 존재했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해 기술상용화가 빠른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투입도 기술창업 기업의 생존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케팅 및 판로개척) 청년 기술창업 기업 중에 B2B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에서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 진입은 빠르지만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판로 개척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규 시장의 경우 관련된 제도의 미비,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
 - 해외 수출을 시작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미 무역 시 관세 부분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네트워킹 및 멘토링)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동아리나 창업 보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은 업계 내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나, 전 세대 기술창업 기업이 투자 분야 네트워크는 취약한 실정임

-
- (심리적 부담감) 창업 후 매출과 연결이 되지 않고, 초기 시드 투자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부채와 생계 부담 등에 따라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창업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부담감으로 작용함
 - (기술 트렌드 및 환경 적응) 기술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비슷한 분야의 연구자 또는 학·연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매칭이 필요함
 - (세대간 협업) 세대간 협업을 해야한다는 목적의식에서의 협업이 아닌, 목표와 목적이 부합하면 기업 간 자연스러운 협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전북의 창업 환경과 지원정책

- 창업 환경은 수도권에 비해 경쟁이 낮고, 지원사업이 많아 양호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북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지원사업을 받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허들이 있는 듯 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음
-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은 인력 수급의 부분이며,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해 적정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 R&D 기술 개발 사업의 부족하고, 지원 사업의 규모가 작아 기술창업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및 제언

- 지원기관 별로 흩어져 제공되고 있는 지원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단일화 된 창구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초기 창업 단계에서 컨설팅 및 세팅해주는 단계가 필요함
- 창업 보육 기관들의 KPI 설정에 대해 현행 예산 중심의 설정에서 조금 더 보육의 성

공률을 담을 수 있는 KPI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전북 내 기술창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좋은 창업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계의 기초부터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 하여야 함
- 자체 운영 지원사업의 운영 방법과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성장단계별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검토해야 함

3. 소결

■ 전북 기술창업 전체 현황

- 전북의 전체창업 기업 수는 최근 2년간 증가했으나, 기술기반 창업의 전국 비중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전통 제조 기반의 기술창업의 약화가 두드러짐
- 전북의 폐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은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3년 이내,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초기 및 재창업 단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됨
- 전북은 고성장형 기술창업의 형태보다는 생계형·경력 전환형 기술창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북 기술창업의 실태조사 결과

- 전북 기술창업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44.1%가 성장단계, 성숙단계는 4%에 불과하여 스케일업 단계 진입이 제한적임
- 청년층은 B2C의 비중이 41.9%로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층은 B2B의 비중이 4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이가 있음
- 창업동기는 성장지향적·시장선도형 동기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창업과정에서 자금확보, 창업전반의 지식·경험 부족, 생계유지 문제 등이 애로점으로 나타남
- 83%가 외부투자 경험이 없고, 투자 유치 기업의 규모도 1~5억원 수준으로 한정적임
- 기술이전의 비율(26.4%)은 낮으며, 창업 아이템의 독자개발(83.6%)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출연연 연계 기술사업화는 미흡하며, 연구소·R&D 인력 미보유 기업이 절반에 가까워 기술창업임에도 기술 고도화 기반이 취약함
- 직접사업화 관련 지원의 만족도는 높으나, 지원사업의 미신청 사유로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요건의 과다 등이 지적되어 정책의 접근성과 전달체계의 한계가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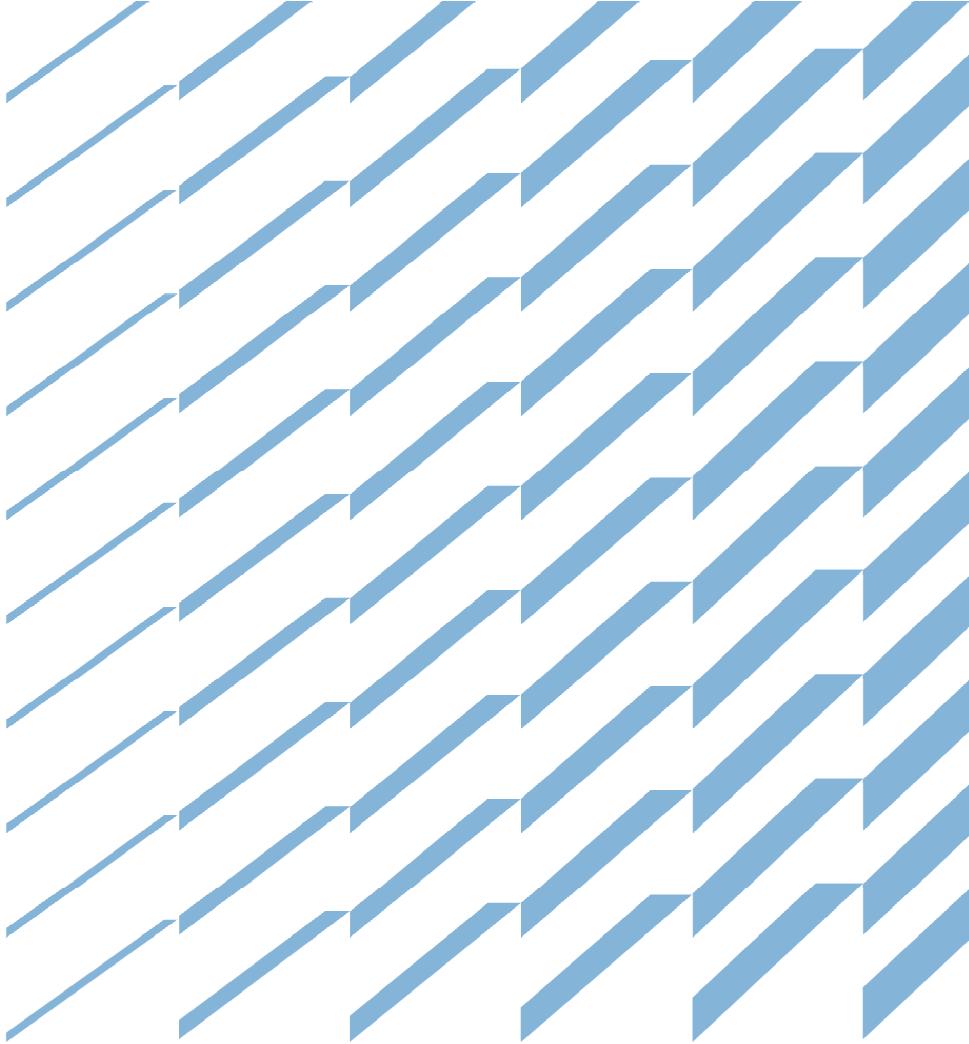
■ 심층인터뷰 결과

- (자금)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며, 투자유치 이전의 단계에는 대표자 개인 자산 담보에 의존해야 하고, 몇몇 규제나 법적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지원의 제한도 있음
- (인력) 고급 기술 인력은 전북 내에서 수급하기 어려우며 초기 기업 특성 상 신입의 양성보다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함
- (기술개발 및 R&D) 기술개발 자체보다 기술을 실증할 환경과 데이터가 더욱 중요하고, 공공 R&D 인프라나 연구기관 등의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음
- (마케팅 및 판로개척) 기술의 검증이 완료되면 시장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나, 마케팅 및 판로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주로 수도권에서 해결하고 있음
- (네트워킹 및 멘토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보육 및 멘토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이나, 예비창업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의 접근이 어려우며 창업 이후에는 시기상 늦음. 선배창업가 등의 네트워킹이 지속적이고 많이 이뤄지길 바람
- (창업환경) 전북은 테스트베드의 역할에 매우 적합해 보이며, 초기 보육은 장점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자금·인력·시장의 연계는 취약함

■ 종합 시사점

- 전북의 기술창업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투자 연계·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고리가 약하며 사업화·네트워크의 결핍 등에 따른 구조적 개선의 해법이 필요함
- 전북은 중장년 중심의 기술창업 구조인데, 대체로 경험 활용형·안정 지향형 창업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고도화 및 투자 연계형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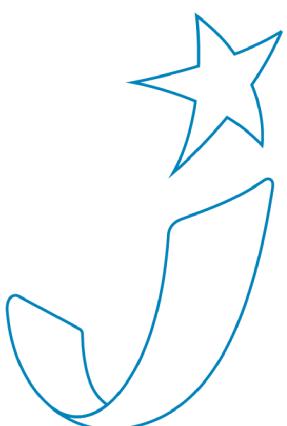
-
- 투자유치의 경험 여부, 투자 시기, 사업화 경험 등이 기업의 성과와 강하게 연결되므로 보육 중심의 교육 및 공간 제공에서 후속 투자와 회수 연계 활발화 정책으로 정책적 방향의 집중 이동이 필요함
 - 전북은 기술이전, 공동 R&D, 연구소 연계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대학·출연연·공공기술과 연계된 지역 차원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제5장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1. 전북 기술창업의 진단
2. 기본방향 설정
3.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제5장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1. 전북 기술창업의 진단

- 전북의 기술창업 관련 정책, 기업의 현황, 실태 등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세대별 기술창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청년과 중장년의 기술창업에는 연구·개발 경력, 기술·특허 유무 등에 의해 초기 창업의 형태나 비즈니스 유형이 달라짐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보이나, 지역적 특성과 입지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은 공통적으로 드러남
- 따라서, 전북의 기술창업은 세대별 특성을 나눈 전략을 탐색하기보다는 창업·투자 환경, 제도적 기반 등의 기술창업의 전반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행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앞서 분석한 내용 중 빈도가 많고 주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구분하여 진단하고자 함
 - 전문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초기 자금난, 네트워킹의 부재, 지원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저하 등은 모두 공통적인 애로사항임

■ 청년 기술창업

- (전문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전북 내 고급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초기 팀빌딩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홍보·마케팅 등에서도 마찬가지임
- (초기 자금난과 데스밸리) 창업 초기 자산 및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자금 확보가 어려움
- (네트워킹의 부족) 수도권 대비 AC나 VC 등과의 스킨십이 부족하고, 선배 창업가와

의 멘토링 행사 등의 기회가 적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 실질적인 성장 노하우 등의 공유가 어려웠음

■ 중장년 기술창업

- (고비용 장치산업 중심의 자금 미스매치) 중장년 창업은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으나 관련 지원사업이 SW/서비스업 중심의 소액 지원에 맞춰져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지원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저하) 실태 조사 결과,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홍보 측면에서 정보 전달체계가 중장년층에게 친화적이지 않음

■ 제도 및 인프라 한계

- (통합 거버넌스 및 법적 근거 미비) 전북은 청년, 중장년, 기술창업 등으로 쪼개져 있는데, 지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정으로 볼 수 없어 통합적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어렵고 지원기관간 연계 부족함
- (행정 절차의 경직성)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재료비 사용 규제,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이 기술 개발의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지역 투자 생태계의 취약성) 공공 주도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모험 자본(Venture Capital) 생태계가 빈약하여 스케일업 단계에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유인이 큼

2. 기본방향 설정

■ 기본방향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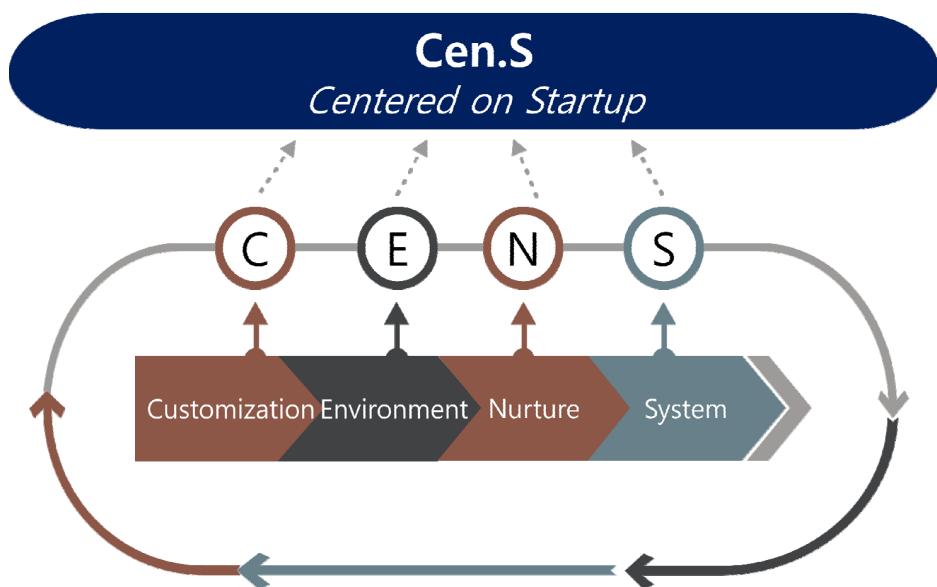
- 기본방향은 전북의 앞서 나온 실태를 종합하여 나온 진단을 바탕으로 연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표 5-1] 전북 기술창업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도출

구분	실태	진단	활성화 방안
(C) 세대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지원 예산·사업 집중- 중장년 창업 비중은 높으나 기술·사업화 지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창업 특성 미반영- 중장년센터 모델 보강을 위한 후속 연계 사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기술·글로벌·투자역량 강화- 중장년 후속 연계 사업 강화
(E) 생태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창업기업 집중, 성장 기업 부족 실태- 민간투자·스케일업 연계 미흡- 맞춤형 멘토링 및 멘토의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사다리의 연계 미흡- 공공지원 중심의 구조 고착화- 지역내 멘토의 성장 경험·전문성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 연계 강화- 스케일업·실증·공공구매 연계- AC 연계 멘토링 플랫폼 구축
(N) 지역기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농생명 분야 전략산업이나 소규모·영세성 자속-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의 사업은 분절적이며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은 있으나, 기술 창업으로 전환 미흡- 고부가가치 창출 한계-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의 기술 활용 부족- 성장·투자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전략산업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창업 활성화
(S) 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 조례 존재- 실태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등 조례 보완 필요- 정책설계의 근거 부족- 기관별 개별 지원으로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 실태·성과 DB 구축- 민관 협의체 및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원스톱 창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 Cen.S 있는 전략적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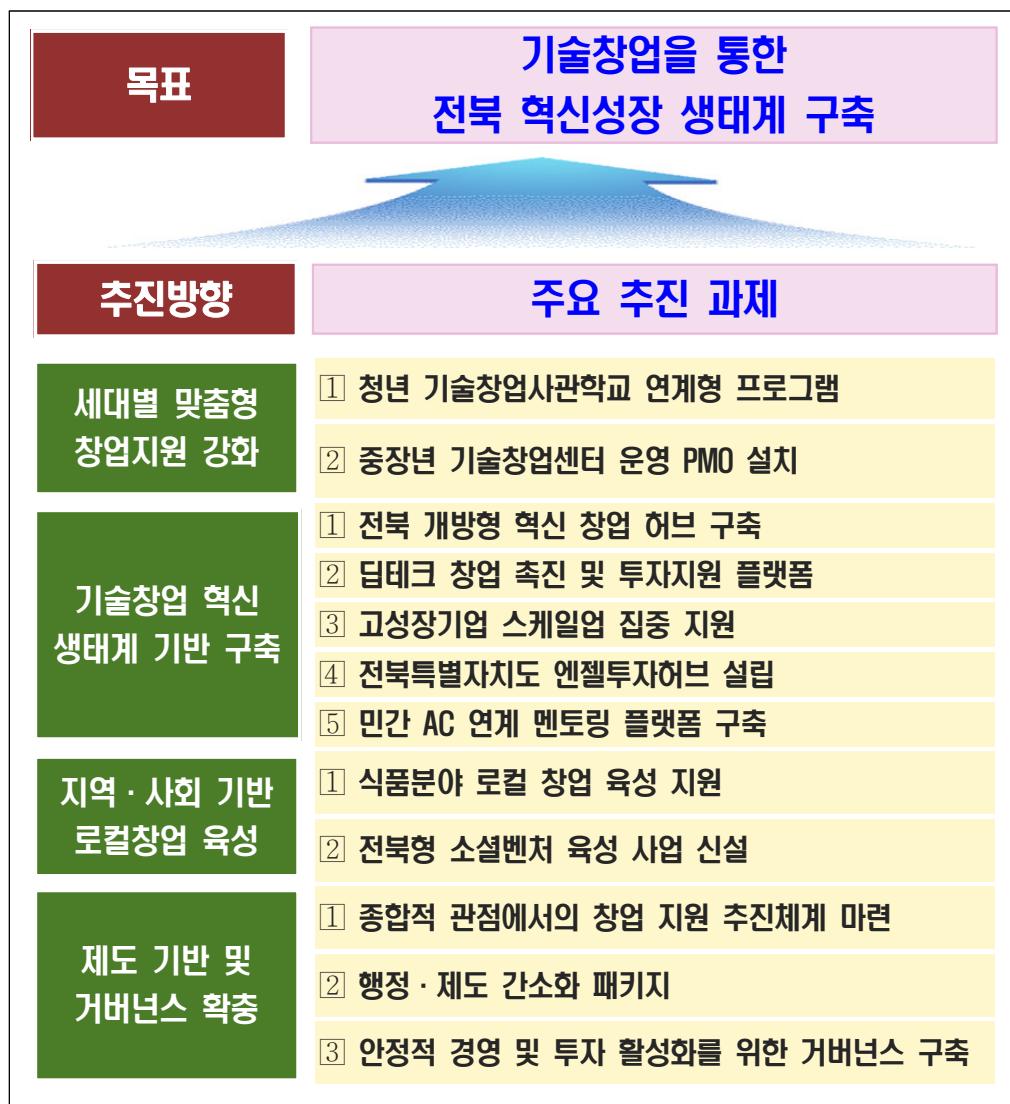
- 전북의 스타트업 정책의 브랜딩을 위해 ‘Cen.S’를 제시함
 - Cen.S는 ‘Centered on Startup’의 약자로서,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스타트업이 객체가 아니라 중심축으로 놓는 전략적 체계가 필요성을 강조함
 - 금융, 인력, 규제, 인프라 등의 다방면의 주요 요소들이 스타트업을 둘러싸는 구조로 이뤄짐
- Cen.S는 전북의 산업·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창업 정책의 전략적 브랜드임
 - (Customization)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
 - (Environment)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전략
 - (Nurture) 지역 기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창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성장시키는 전략
 - (System)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설계·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및 거번년스 구축 전략



[그림 5-1] 전북 스타트업 정책의 브랜딩 전략

3.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가. 목표 및 중점과제



[그림 5-2] 목표 및 추진방향

나. 주요 추진과제

1) 세대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청년 기술창업사관학교 연계형 프로그램

- 기존의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투자형)는 농생명 바이오,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를 특화분야로, 40명을 선발하고 있음
 - 전국형을 제외하고, 본·지점 소재지가 전북인 곳이 신청할 수 있는 중점분야는 글로벌형(신산업, 초격차, 뷰티 분야), 지역특화형(환경·에너지 소재, 헬스케어)이며, 각각 광주, 전남(나주) 사관학교임
-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형으로 준비단계, 후속단계 프로그램을 제안함
- (Track 1: Pre-School) 대학 실험실 창업 특화
 - 전북대, 원광대 등 도내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석·박사급 연구원 대상
 - 기술이전 및 법인 설립 지원에 집중하여,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
- (Track 2: Post-School) 청창사 졸업기업 '전북 안착' 프로그램
 - 중기부 청창사(전북 포함 타 지역 졸업생) 졸업생 중 전북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 대상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지역판 모델로, 수출 및 양산 자금 지원, 지역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지원
- 전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전략산업 클러스터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기존의 제조업 시제품 중심에서 딥테크 기술창업 특화 커리큘럼, AC·VC·엔젤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 연계 강화 등은 기존의 정책과의 차별성이 있음
- 졸업 후 도내 창업 시 입주공간, 후속자금, 멘토링 등 연속지원 혜택 부여하여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도내 청년 인재 유입의 거점을 마련
- 졸업생의 성공 사례는 후배 청년의 창업 도전의 롤모델로 작용하여 창업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에 긍정적이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PMO 설치

- 전북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개소(전주·군산·익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보육 중심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운영·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구조임
 - 전주센터는 경제통상진흥원, 군산센터는 전북산업융합지원단, 익산센터는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이 시행하고 있음
- 중기부 사업이며 중장년의 (예비)창업기업의 발굴부터 교육 및 보육 등의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북 내 효율적인 지원과 성과로 이어지는 후속 사업의 연계가 미흡함
- 따라서, 3개 센터 공동 운영 PMO를 통해 광역단위에서 전략적인 프로그램 공동기획, 강사·멘토 풀의 통합, 성과관리 전담, 후속사업의 연계 매칭 등을 수행하는 통합 전문 조직을 신설
 - 조직의 업무 효율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후속 성장 지원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특히, 보육 중심의 사업이므로 성장을 위한 투자나 스케일업 등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 설계가 필요한 구조임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연계한 IR 및 판로개척 패키지도 함께 운영
- 기존의 사업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전담 PMO조직을 통해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센터별 개별 기획이 아닌, 공통 기본프로그램 +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의 이원화 구조 설계가 가능함
- 전문인력을 광역단위로 풀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
- PMO가 성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환류를 전담하고, 차년도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을 기획·관리함으로써 전북형 단일 KPI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며 전북 중장년 창업 정책의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
 - 중기부 중장년 정책의 변화와 딥테크 등의 기술창업 정책 등의 정책 트랜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해석하고 적용

-
-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동 대응이 가능함
 - 중기부의 사업 성과 지표에 더하여 후속연계(투자·판로) 성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북형 단일 KPI 체계로 표준화하여 보육을 넘어 성장을 위한 체계 개편

2) 기술창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 전북 개방형 혁신 창업허브 구축

-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기술창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 연구역량을 지역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여 전북을 기술사업화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일환임
- 도내에 분산되어 있는 창업지원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서 연구자와 창업자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혁신 클러스터의 역할을 수행함
- 산-학-연의 매칭을 통해 연구자-경영자의 협력적 매칭, 초기사업화, 자금지원, 민간 투자 유치 지원, 규제 및 행정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함
- 단, 도내 출연연의 경우, 대부분이 분원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본원에 위치한 기술사업화조직(TLO)과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차츰 단계적으로 기능적 확장을 전제로 함
- 기술사업화 지원 패키지를 통해 유망 기술별 시장성 분석, 연구비 지원, 시제품 개발 및 시험 인증, 경영교육 등의 지원 패키지 제공
- 도내 잠재 공공기술이 창업의 기반이 되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전체적인 풀이 확대됨으로써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능함

■ 딥테크 창업 촉진 및 투자지원 플랫폼

- AI, 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가치 첨단 분야의 스타트업의 발굴과 성장을 촉진하여 기술개발부터 투자까지 딥테크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마련함
- 딥테크 스타트업 전문 AC를 운영하여 우수한 기술창업팀의 발굴 지원, 사업화 연계 전략 컨설팅 등 초기 성장을 지원함
- 투자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내외 VC나 엔젤투자자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투자 제안, 연계 펀드 설계, 대기업·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IR 등 적극 지원
-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기술 우선 테스트베드 제공
- 딥테크 기업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인력 확충
 - 단, 딥테크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전성과 혁신성이 인정되어 도내 딥테크 기업에 지정된 기업에 한함

■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집중지원

- 전북은 유망스타트업 스케일업100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사 매칭, 단계별 멘토링 및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선정에 대한 인증 증서를 발급하고 관리
 - 네트워크 행사,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멘토링 지원
 - 전북 출자펀드 운영 투자사 상담 매칭 지원 등
-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2인 이상의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100의 경우, 업력을 7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기술창업의 유망기업이 전북 내에서는 우수하나, 전국 혹은 글로벌 단위에서 그 수준을 비교하기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대기업 본사의 수나, 중견·중소기업의 기반이 타 시도에 비해 미약한 전북의 기반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에 한정된 지원을 벤처기업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요건에는 업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스타트업의 범위에서 벤처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집중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여 도내 고성장 기술기반 벤처기업이 도내에서 스케일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집중 지원을 위해 고성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스케일업 지원기업으로 등록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확립함
- 사전에 유망 고성장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및 시장 판로개척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확산

■ 전북특별자치도 엔젤투자허브 설립

- 도내 AC는 있으나, 지역 기반 VC, 엔젤투브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술창업기업의 초기 육성과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는 필수적임
- 특히, 스타트업은 담보력·매출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우며 VC의 투자유치 까지 지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엔젤투자는 시드단계 자금 공급을 통한 창업 초기 생존율 제고에 핵심 역할을 함
- 도내 잠재적 엔젤투자자가 존재하나, 투자 정보나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엔젤투자협회 등 도내 관련 지원기관이 전무하여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센터가 필요함
-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엔젤투자허브 중에 호남권 엔젤투자허브가 있으나, 전북에는 전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엔젤투자허브 설립을 통해 엔젤투자의 창구를 확보

■ 민간 AC 연계 멘토링 플랫폼 구축

- 기술창업은 기술개발 외에도 경영관리, 마케팅, 재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요구되기에 선배 창업가, 산업·경영 전문가 등의 멘토링은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줌
 - 비슷한 단계의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킹은 정보교류, 협력 기회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
- 현실적 조언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분야별 멘토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창업 멘토단이 필요함
 - 단, 현재 전북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단을 운영하고, 정례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선배 창업가, 산업계 전문가, 투자사, 법조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의 풀이 필요함
- 현재 지역내 창업 멘토에 대한 전문성과 실질적 도움에 대한 연계가 미흡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AC 연계 멘토링 플랫폼을 구축
 - 지역 내 멘토 역량 부족 및 맞춤형 멘토링 한계의 구조적인 해소
 - 민간 AC를 멘토링 운영의 중심 주체로 전환하여 멘토링-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인프라 기반 구축
 - 검증된 멘토 네트워크, 프로그램형 밀착 멘토링, 투자·IR·후속 연계 등의 장점이 존재함
- 복수의 민간 AC를 컨소시엄 형태로 지정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개별 AC가 주도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함
 - 도내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관련 사업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도록 함
 - 멘토링 인력 풀은 공개하고, 정책수혜자가 직접 선택을 하고 멘토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맞춤형 설계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원칙으로 함
 -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우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AC에게 도내 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 연계를 강화함

3) 지역·사회 기반 로컬창업 육성

■ J-푸드 로컬 창업 육성 지원

- 전북은 농생명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기술 기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기존의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를 개편하여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으로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형과 매출 증대형을 나눠 사업화지원을 하고 있음



자료: 김한식. (2025.5.8.). 「전북도, '전북형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본격 가동」. 전자신문에서 발췌

[그림 5-3] 전북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추진체계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청년식품창업센터를 통해 청년 식품기업이 다수 입주하여 기술·생산·보육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지원) 식품 창업체험 및 시제품 제작 지원(전처리·가공·포장 등)
 - (생산지원) 식품제조 전용 임대형 공장 운영
 - (보육지원)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등
- 농식품 창업은 타 기술창업과는 달리 입지, 자원, 기후, 생태, 지역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존적이기에 지역의 특수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
- 따라서, 농식품 기술창업은 초기부터 로컬의 실증과 지역 수요 확보가 중요하여 지역 문제 해결형 기술창업의 형태로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의 보완적 역할로, 전북의 농식품 로컬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의 농가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의 장점을 활용하고, 공공조달·급식·로컬푸드 등과 연계 필요
 - 지역금융·협동조합·암팩트 투자 연계 활성화 필요

■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사업 신설

- 전북은 전략산업분야를 주축으로 소셜벤처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기후테크 관련 벤처펀드 등을 활용하여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환경을 바탕으로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타 시도의 경우, 아직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등에 한정되어 있음
 - 경기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은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소셜벤처 성장플랫폼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위해 단계별 추진 프로세스를 제공함
 - (발굴) 소셜벤처 경진대회, 공모 등의 기업 발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기업을 발굴
 - (인증)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소셜벤처를 인증하고,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전북도 및 기관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 (팁스 연계) 도내 팁스운용사를 활용하여 일반 팁스 사업을 연계하고, 추가로 pre-팁스(비수도권 제한)를 통한 투자 및 R&D 자금 지원 강화
 - (사회성과인센티브) SK CSES(사회적가치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한 성과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기업의 스케일업 경로를 확보

대전광역시 소셜벤처 관련 사업 사례

■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 원도심 기반 소셜벤처 (예비) 초기 창업기업 대상, 아이템 검증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 및 1:1 맞춤 컨설팅(회계, 세무, 경영)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책
 - (대상)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지원내용) 우수 소셜벤처 발굴 및 아이템 검증,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전창업허브 보육공간 제공
 -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파트너 기업 초빙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지원
 - 대전창업허브 메이커스페이스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등
 - (프로그램) 소셜벤처 창업연계 지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 (입주공간) 대전창업허브 및 소셜벤처캠퍼스 내 기업 입주공간 25실, 회의실 등

■ 소셜벤처 성장플랫폼 운영 활성화 사업

- 창업플랫폼 연계, 소셜벤처 성장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지원, 기업가치 평가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등 추진
 - (대상) 소셜벤처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지원내용) 민간운영사 상주 액셀러레이팅 및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소셜벤처 기업 대상 비콥(B Corp) 인증 교육 추진
 - (프로그램) 맞춤형 특화지원 및 기업 가치평가,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 (입주공간)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내 기업 입주공간 15실, 회의실 등

4) 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 종합적 관점에서의 창업 지원 추진체계 마련

- 타 시·도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음. 기본조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대상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각 사업별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현재 전북자치도의 창업 지원 조례 체계는 기술창업, 청년창업, 중장년창업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각 조례에서는 규율 대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창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는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창업, 중장년창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수행하게 되어 있음. 기본조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규정할 경우 모든 분야의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함
- 기술창업, 중장년창업 및 청년창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창업 지원에 관한 통합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중소기업창업법 제12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 신산업창업에 관한 사항을 전북의 창업지원조례에 신설하여 조례 정비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법률 개정시 청년창업 및 중장년창업 외에 신산업창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경기도는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신산업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행정·제도 간소화 패키지

- 창업·성장 과정에서 복잡한 창구와 행정절차, 규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자등록, 법인화, 인허가, 특허, 계약 등의 행정·규제 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패키지 제공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예비창업부터 성장단계별 필요한 조치나 지원사업 등에 대한 분할 창구를 설치하여 언제든 편하게 상담하고 안내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에도 전담 창구 연계 필요
- 신기술에 대한 실증, 조기시장 테스트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전북의 주력산업이 아니더라도 신기술에 대한 실증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열어둠

■ 안정적 경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체계 등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기술창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이루어지므로 도의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기술창업자, 민간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기술창업 지원 자문위원회 등을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창업 지원센터 외에도 전문적으로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고 금융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마련이 요구됨
 - 기업발굴-창업-성장-재투자(회수) 전략까지 동시에 원스톱지원이 가능하며, 다중 분산된 창업정책 및 지원사업의 실행에 대해 수요자 친화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REFERENCE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사)창업보육협회. (2022). 창업보육매니저 1급 교재 (제1권, p. 3). 한국창업보육협회
- 국립국어원. (2025). 창업. 표준국어대사전
- 기획재정부. (2025.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김정덕. (2025.5.6.). 「강도 약해졌지만 ‘수도권 솔림’ 여전했다[기술창업 보고서]」. 더스쿠프
- 김한식. (2025.5.8.). 「전북도, ‘전북형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본격 가동」. 전자신문
- 법제처. (20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4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생태계 분석 및 발전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2025.5.15.).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September).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 ETRI Webzine.
- 황윤경. (2018.5.31.). 창업의 정의[경상시론]. 경상일보, 18면
- 김진수, 최종인, 임충재, 고혁진, 이유종. (2016). 기술창업론 (개정판). 탑북스.
- 이재석, 이기호, 이상명. (2021).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유니콘 기업의 사례 비교. 중소기업연구, 43(1), 165-186
- 이정민, 김병근. (2021). 기술창업기업 성과 영향요인: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4(6), 1103-1139
- Acs, Z. J., Audretsch, D. B., & Lehmann, E. E. (2013).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41, 757-774.
- Audretsch, D. B., & Lehmann, E. E. (2005). Does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hold for regions? *Research Policy*, 34(8), 1191-1202.
- Autio, E., Nambisan, S., Thomas, L. D. W., & Wright, M. (2018). Digital affordances, spatial affordances, and the genesi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2(1), 72-95.
- Bailetti, T. (2012). Technology entrepreneurship: Overview, definition, and distinctive aspect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2), 5-12.

- Barney, J.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ollinger, L., Hope, K., & Utterback, J. M. (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1), 1–14.
- Christensen, C. M. (1997). *The innovator's dilemma: When new technologies cause great firms to fail*.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Cohen, W. M., & Levinthal, D. A.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 Cooper, A. C. (1971). The founding of technologically-based firms.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 Gartner, W. B. (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Giones, F., & Brem, A. (2017). Digital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 definition and research agenda.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7(5), 44–51.
- Greiner, L. E. (1972).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 *Harvard Business Review*, 50(4), 37–46.
- Lester, D. L., Parnell, J. A., & Carraher, S. (2003). Organizational life cycle: A five-stage empirical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11(4), 339–354.
- Lewis, V. L. and N. C. Churchill(1983), “The five stages of small business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Vol.61, No.3, pp. 30–50
- Mazzucato, M. (2018). *The value of everything: Making and taking in the global economy*. Allen Lane.
- OECD. (2023).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 Porter, M. E., & Heppelmann, J. E. (2014).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92(11), 64–88.
- Porter, M. E., & Kramer, M. 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62–77.
- Ries, E. (2011). *The lean startup*. Crown Business.
- Roberts, E. B. (1991). *Entrepreneurs in high tech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K. C. (1999).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industry structure on eight alternative measure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2)
- Sarasvathy, S. D. (2001). Causation and effectu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243–263.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tt, M., & Bruce, R. (1987). Five stages of growth in small business. *Long Range Planning*, 20(3), 45–52.
- Shane, S. (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Edward Elgar.
- Shane, S.,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ong, M., Podoynitsyna, K., van der Bij, H., & Halman, J. I. M. (2008). Success factors in new ventures: A meta-analysi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5(1), 7–27.
- Startup Genome. (2023).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3. Startup Genome.
- Teece, D. J. (2007). Explicating dynamic capabilit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8(13), 1319–1350.
- Teece, D. J. (2010). Business models, business strategy and innovation. *Long Range Planning*, 43(2–3), 172–194.
- Teece, D. J. (2018). Business models and dynamic capabilities. *Long Range Planning*, 51(1), 40–49.
- Teece, D. J. (2019). A capability theory of the firm. *New Zealand Economic Papers*, 53(1), 1–43.
- Wright, M., Clarysse, B., Mustar, P., & Lockett, A. (2007).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Europe. Edward Elgar.
- Zahra, S. A. (1996). Technology strategy and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4), 289–321.

SUMMARY

Revitalizing Jeonbuk's Tech Startup Ecosystem

Hee-Un Ko · Miseon Jeong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Background and Goals

- As the new administration emphasizes technology-driven growth and the role of venture enterprises, it is time for Jeonbuk State to examine the region's current technology start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ch startup") landscape.
 - As of 2024, the share of tech startups in Jeonbuk stood at 2.25%, placing the region 12th among the nation's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 Against this backdrop, Jeonbuk State must not only facilitate the formulation of a comprehensive plan pursuant to the Jeonbuk State Ordinance on Tech Startup Support but also urgently develop a suppor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Jeonbuk State Ordinances on Youth and Middle-Aged Startup Support.
 - Jeonbuk enacted the "Jeonbuk State Ordinance on Middle-Aged Startup Support" and the "Jeonbuk State Ordinance on Youth Startup Support" in December 2024. These ordinances stipulate that the relevant support plans be formulated on a five-year cycle.
- Notably, under the Jeonbuk State Ordinance on Tech Startup Support, a comprehensive technology startup support plan must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to stimulate the growth of tech startups. As the initial comprehensive plan was adopted in 2021, the next must be formulated in 2026.
- Amid growing concerns over the weakening foundation for innovative growth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ssess Jeonbuk's current tech startup landscape and ecosystem, thereby developing demand-responsive support systems and strategic roadmaps for its revitalization.

■ Methods

- (Review of the Tech Startup Concept and Policy Landscape) We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ech startup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examined the government's policy roadmaps for tech startups, and analyzed the corresponding policy landscape, including the Jeonbuk State Ordinance on Tech Startup Support.
- (Situational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ech startups by generation and comprehensively assessed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nd key issu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 (Derivation of Measures to Revitalize the Tech Startup Ecosystem) Based on the results, we derived measures to revitalize Jeonbuk's tech startup ecosystem.

2.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Research Summary

- Despite quantitative expansion, Jeonbuk's tech startup ecosystem suffers from a weak growth ladder, lacking pathways to scale-up, investment linkages, and re-entry. Thus, it necessitates structural improvements to address deficiencies in commercialization and networking.
- Jeonbuk's tech startups are centered on middle-aged entrepreneurs, who primarily pursue experience- and stability-driven approaches. In this context, a supportive springboard is required to accelerate their transition toward high-growth ventures by focusing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vestment-linked business

strategies.

-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perience in attracting investment, investment timing, and commercialization experience. Therefore, a policy shift is required to move from merely providing incubation-centered training and space to revitalizing the tech startup ecosystem through stronger linkages to follow-on investment and exit strategies.
- As Jeonbuk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in technology transfer, joint R&D, and research institute-linked projects, a regional-leve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tform must be constructed, integrating universiti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technologies.

■ Policy Recommendations

- With Cen.S—a strategic startup policy brand designed to address Jeonbuk's industrial and social challenges—taking center stage in the strategic system, we set the goal of “Fostering an Innovation-Led Growth Ecosystem in Jeonbuk through Tech Startups” and presented four strategic directions and twelve action tasks.
 - Cen.S, which stands for Centered on Startup, is a brand highlighting startups as the basis of policy design. Cen.S is an acronym formed from the initial letters of its four strategic pillars—Customization, Environment, Nurture, and System.
 - (Four Strategic Directions)
 - (C) Strengthening generation-tailored startup support, (E) Building a foundation for a technology startup innovation ecosystem, (N) Promoting regional, community-based local startups, and (S) Establishing robust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governance.
 - (12 Action Tasks)
 - (C1) Development of a youth tech startup academy-linked program
 - (C2) Establishment of a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for middle-aged tech startup center operations
 - (E1) Creation of Jeonbuk's Open Innovation Startup Hub

- (E2) Construction of a platform to accelerate deep-tech startups and provide investment support
- (E3) Provision of intensive scale-up support for high-growth firms
- (E4) Establishment of Jeonbuk's Angel Investment Hub
- (E5) Construction of a private accelerator-linked mentoring platform
- (N1) Provision of support for promoting local startups in the food sector
- (N2) Launch of a Jeonbuk-specific social venture development project
- (S1)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tartup support delivery system
- (S2) Creation of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treamlining packages
- (S3) Construction of a governance framework for stable management and investment revitalization

Key Words

technology-based startups, policy for supporting technology-based startups, Jeonbuk's current tech startup landscape, Jeonbuk's tech startup policy, tech startup revitalization

정책연구 2025-35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 장성화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14-9 9530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시장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